조국과 인생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조국과 인생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책을 내면서

조국!

성스럽고도 숭엄한 이 부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는 말은 없다.

삶의 젖줄기와도 같은 가없는 대지의 풍만함도 있고 푸르청청한 저 하늘의 장중한 세계처럼 그 폭과 깊이를 알수 없는 사랑과 정의 심오함을 다 안고있는 어머니조국.

하기에 공화국의 유명한 한 시인은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것이 위대하고 신성한 조국이라고 하면서 그대의 심장을 주기 전에는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토로했다.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은 《조국은 생명》이라고 산야의 나무들에 피로 새기였고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며 정처없이 방황하다가 마침내 진정한 조국을 알게 된 해외동포시인은 심장을 버리고 살수 없듯이 조국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심장으로 노래했다.

그렇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것이다. 아니, 조국은 생명 그자체이며 유기체의 심장과도 같다.

하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조국이란 무엇인가. 이 행성에 생의 뿌리를 둔 수십억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러한 조국이 있는가. 세상에 태여난 무수한 생가운데서 어떤 삶은 별처럼 빛나는데 어떤 삶은 땅우에 스쳐간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것은 무엇에 기인되는가.

무릇 사람들은 조국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선조의 땅, 나서자란 고향땅을 의미한다고 보아왔다. 물론 선조들의 무덤이 있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씨뿌리며 곡식을 가꿔온 땅, 만대를 이어가며 후손들이 살아야 할 고향땅이 조국개념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것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국이란 단순히 고향산천, 선조들의 넋이 깃든 곳

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삶의 터전으로 되여야 한다. 령토는 있어도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곳은 참다운 조국이라 부를수 없다.

사람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여있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곳이 바로 진정한 조국이며 이러한 참다운 조국의 품에서 인간의 삶과 희망, 포부가 꽃펴나고 빛날수 있다. 조국의 운명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으며 조국을 떠나서 인간의 참된 삶이란 있을수 없다.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 정종근.

진정한 조국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삶은 무엇으로 하여 꽃펴나고 빛나게 되는가를 뼈저린 체험으로 알게 된 그는 공화국의 한 평범한 공민으로서, 애국의 한마음을 지닌 과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사회주의 조국의 품, 절세위인들의 품에 안겨 인생의 영광과 행복을 다 받아안은 사람이다.

《길가의 조약돌과도 같은것이 일본땅에서의 나의 신세였고 어쩔수 없는 나의 운명이였다. 그러던 내가 인생의 극적전환을 하게 된것은 진정한 조국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처럼 그리던 사회주의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그때부터였다. 부강조국건설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는 그지없이 소박한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한없이 자애로운 그 품이 있어 나의 생, 나의 삶은 영광속에 빛날수 있었다.》

정종근이 쓴 자서전의 한 대목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사회제도속에서 살아온 그의 인생이 주는 교훈, 삶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누구이든 인간의 운명, 인간의 삶, 인간의 전도는 조국을 떠나 추호도 생각할수 없으며 진정으로 참다운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 자기 조국을 심장에 안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을 걷는데 있다는것, 그 어떤 시련과 역경에 처한다고 하여도 오직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시고 우리 겨레의 어버이이신 절세위인들을 운명의 구세주로, 삶의 태양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우리 모두의 참된 삶과 인생의 영광,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이다.

이것이 80고령에 이른 정종근의 한생의 총화이다. 심장을 버리고 살수 없듯이 조국을 떠나 살수 없다고 동시대인들과 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 새겨주는 체험의 웨침, 피의 웨침이다.

아래에 이국땅 일본에서 나서자라 그토록 소원하던 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을 걸어오고 그 보람찬 애국의 한길에서 절세위인들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속에 참된 삶을 누리게 된 한 재일동포과학자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전한다.

차　　례

1. 진정한 조국은 어디인가

□ 태를 묻은 곳이여도 돌아갈수 없는 땅

해방을 이태 앞둔 1943년에 생의 고고성을 터친 정종근.

그가 인생의 첫발을 내딛은 곳은 조선땅이 아닌 섬나라 일본의 이바라기현 고가시였다.

조선사람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국의 한적한 소도시에서 태여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에게 숙명처럼 차례진것은 식민지망국노라는 기구한 운명이였다.

수십년간에 걸치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그 시절 살길을 찾아 하많은 조선사람들이 남부녀대하고 고국산천을 떠날 때 정종근의 부모들도 피눈물을 뿌리며 고향땅을 하직하였다. 1928년의 마가을 고향인 경상북도를 떠나 불우한 운명들이 현해탄을 넘어 일본으로 흘러왔지만 그들을 기다린것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뿐이였다. 싸늘한 랭대에 쫓기우면서 여기저기 방황하던 그들은 가까스로 도꾜에서 멀지 않은 고가시에 보짐을 풀게 되였다.

당시 고가시는 3만여명의 인구가 사는 자그마한 산골도시였다.

2층짜리 집이란 불과 몇채뿐이고 도시변두리에 나서면 개구리우는 논판이였고 잡관목에 뒤덮인 야산이였다.

젊은 종근의 부모들은 당장 입에 풀칠할것이 없는 형편이여서 품팔이부터 시작하였다. 극심한 생활고속에서도 부부간의 정은 각별했고 금슬이 좋아 종근이가 태여날 때에는 그우로 형이 세명, 누이 한명이 있게 되였다. 아래로는 몇년사이에 녀동생 한명, 남동생 한명이 생겨 일곱남매, 부모들까지 합하면 아홉명이라는 대식구로 되였다.

어진 성품을 지닌 아버지와 인정이 많은 어머니는 자식 일곱을 낳아 키웠으나 언제 한번 말소리를 높인적이 없었다.

일곱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살리자고 부모들은 밤잠을 모르고 닥치는대로 일을 하였다. 아버지는 고물장사, 엿장사, 술장사, 담배장사를 하면서도 남의 집에 품팔이할 일감이 있다면 밤중에라도 수십리를 달려가군 하였다. 어머니는 매일과 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해가며 아이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다.

《시간이 다 어디로 갔나?》

어머니의 입에 늘쌍 오르군 하는 말이였다. 그만큼 종근의 어머니는 종일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일하다나니 시간이 언제 가고 언제 오는지 몰랐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으며 다음날 1시이전에 잠에 든적이 없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누울수가 없는 가정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

그는 몸이 아플 때면 하루라도 이불속에 누워자고싶다고 말하였지만 단 하루도 휴식을 못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매일과 같이 고역을 치르었어도 가난의 멍에는 벗을수 없었다. 깊은 밤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자리에 주런이 누워자는 자식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군 했다.

그 긴 한숨은 생활고가 뽑어올리는것이였다. 이국에서의 고역살이가 제 나라 땅에서의 고역보다 갑절 힘겹고 고달프다고 한 누군가의 말을 떠올리며 어머니는 늘쌍 눈물을 흘리군 했다.

정종근이 두살때인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제의 쇠사슬에 얽매여 숨쉬기조차 가빠하던 조선인민에게 드디여 일일천추로 학수고대하던 조국해방의 날이 왔다.

얼마나 애타게 그리던 조국해방인가.

해방소식에 일본땅 그 어디에나 재생의 희열에 넘친 동포들의 춤판으로 흥겨웠고 하많은 조선사람들이 귀향의 꿈을 이루게 된 기쁨으로 떠들썩하였다.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와 조선민족에 대한 극도의 멸시가 살판치는 일본땅에서 갖은 억압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하소할데도 없어 민족적 울분에 몸부림치던 동포들이 억제할수 없는 격정을 터뜨리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왜놈들이 망했다, 어서 가자, 조국으로! 그리운 고향으로!

설음과 슬픔을 깨물어삼키며 이국풍상을 겪을대로 겪어온 재일동포들 누구나가 다 조국의 해방에 열광했고 그리운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갈것을 열망하였다.

정종근의 부모들의 심정도 동포들과 다를바없었다. 하지만 귀국으로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였다.

당시 서일본의 항구도시들인 시모노세끼, 하까다, 센자끼 등은 온통 귀국의 길에 오른 조선동포들로 뒤덮였다. 한시바삐 귀향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물밀듯이 모여드는 동포가 하루에도 5 000～1만여명에 달하였다.

하지만 수송선부족으로 귀국수요를 감당할수 없었으며 날이 감에 따라 항구도시들에는 동포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0만을 훨씬 넘어서게 되였다. 공공건물들과 부두창고들이 다 귀국하려는 재일조선동포들의 숙소로 되였고 불탄 공지에는 갖가지 모양의 《새집》들이 생겨났으며 그것이 모여 조선동포들의 마을을 이루었다.

적지 않은 동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쪽배로 귀국하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수장되기도 하였다. 항구들에서는 거처할 곳이 없어 헤매이다가 질병에 걸려 그처럼 그립던 고향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한채 한많은 이역에서 세상을 하직하지 않으면 안된 동포들도 한둘이 아니였다.

재일조선인들의 귀국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일본반동들은 1945년 8월 수천여명의 재일동포들을 태운 해군수송선 《우끼시마마루》를 폭침시킴으로써 귀국의 길에 오른 수많은 동포들을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저질렀다.

공포의 와중에서 종근의 부모들은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고향이 있는 남조선에서도 흉흉한 소리가 들려왔다.

1945년 9월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군정을 실시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무참히 학살하였다.

남조선의 모든 정치적 및 경제적명맥은 미제의 수중에 장악되고 인민들은 도탄속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권리마저 다 빼앗기고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시기나 다름없는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해방의 기쁨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식민지예속의 수난사가 시작되고있었다.

갈수록 험악한 정세하에서 가슴에 넘치는 희망과 포부를 안고 남조선에 귀국했던 동포들은 집도, 직업도 구하지 못하여 길가에서 헤매였으며 심지어 먹을것이 없어 굶어죽기까지 하였다.

고향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며 떠나갔던 동포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원한서린 일본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재도항자들의 수는 날이 감에 따라 늘어나기만 하였다.

남조선에서 전해지는 소식과 재도항자들이 들려주는 말이란 미제의 총칼밑에 신음하는 비참한 현실뿐이였다.

하여 당장 귀국하려고 서두르던 정종근일가는 일시 귀국을 단념하고 정세를 관망하며 덧없는 세월을 보낼수밖에 없게 되였다.

게다가 미일반동들의 방해책동 역시 갈수록 우심해졌다.

미일반동들은 재일동포들의 귀국투쟁을 《불법행위》니, 《지방치안을 문란시키는 란동》이니 하면서 탄압하였으며 《계획수송》이라는 명목밑에 귀국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동포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집행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들은 동포들의 귀국을 가로막기 위한 음흉한 목적밑에 날자를 빠듯이 정해놓고 귀국희망자들은 빠짐없이 다 등록하여야 한다고 공포하는가 하면 194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계획수송》기간에 귀국하지 못한 조선사람들은 일본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강박하였다.

미일반동들은 재일동포들이 귀국하는 경우에도 금, 은, 유가증권을 지참하지 못하게 하고 소지품도 극히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재산도 마음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미일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재일동포들의 자유로운 귀국의 권리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였으며 그들의 생활밑천까지 모조리 빼앗고

알몸뚱이로 추방하려는 강도적술책이였다.

고향인 남조선에 돌아간다고 하여도 살길이 막히는데다가 설사 돌아가자고 하여도 빈손들고 가야 할 형편에 처한 정종근일가는 다른 재일동포들과 같이 일시 귀국을 단념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제가 패망하고 조국은 해방되였으나 돌아갈 길이 막힌 숱한 재일조선인들이 숨막히는 일본땅에서 여전히 눈물속에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속에 몇년이 흘러 조선전쟁이 터졌다. 미제와 리승만괴뢰역도들이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먹어보려는 야망을 품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던것이다.

3년간의 가렬한 조선전쟁기간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미국과 일본당국의 박해와 탄압속에 동포들은 더욱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였으며 정종근일가도 다를바없었다.

미군의 비호두둔하에 일본반동들은 전쟁기간에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의 정국을 혼란시키고 일본인들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다는 랑설을 퍼뜨리면서 광란적으로 책동하였으며 덩달아 일본깡패들도 그 장단에 춤추면서 갖은 못된짓을 다하였다.

어머니를 언제 한번 노엽힌적이 없던 정종근이 어머니의 격분을 크게 자아내게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홉살때인 1952년 12월 어느날이였다.

당시 고가시에는 조선인학교가 없어 학교에 다닐수 있는 조선아이들은 모두 일본학교인 제3소학교에 다니였는데 종근이도 이 소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날도 종근은 수업을 마치고 여러 조선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어디선가 난데없이 고함소리가 째지게 울리더니 뒤이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종근은 아이들과 함께 소리가 난 숲속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중학생나이의 일본아이 몇이서 자기들보다 몇살아래인 소학교생 조선아이 두명을 가운데 몰아놓고 손에 든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있었다.

《뭐 쪽발이들이 조선사람들한테 혼쫄나고 망하더니 조선전쟁에

선 양키들이 얻어맞고 코피를 흘리고있다구?! 야, 이 조선놈의 새끼들아. 일본이 다 죽은줄 알았어?》

《어데 갈데도 없는 불쌍한 거지새끼들아, 그래 너희네가 감히 누굴 모욕한다는거야? 제 둥지도 없는 주제에.》

종근은 어린 마음에도 숲속에서 벌어진 일의 전말을 다 알수 있었다. 조선아이들이 귀가하며 하는 말을 죄다 엿들은 일본아이들이 깡패짓을 해대는것이였다. 자기들보다 육중한 몸체를 가진 망나니들을 당해낼수가 없었던 조선아이들은 얻어맞기만 하고있었는데 종근은 이에 분기가 치밀어오름을 참을수 없었다.

하지만 감히 덤벼들념은 하지 못하였다. 깡패들이 든 흉기도 무서웠고 제힘도 그놈들에 비하면 너무 연약하다고 느껴졌다.

맞을대로 다 맞은 아이들은 녹초가 되여버렸다. 그중의 한 아이는 쓰러져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키가 제 패거리들중에 제일 큰 놈이 그 아이의 몸을 게다짝으로 누르며 너털웃음을 쳐대고있었다.

《맛이 어때? 이렇게 짓눌리우는게 너희 조선놈들의 숙명이야.》

집으로 돌아온 정종근은 방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목격한 광경, 들은 말 모든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죄다 아뢰였다. 씩씩거리며 해대는 아들의 푸념에 어머니의 얼굴색이 새파랗다 못해 검은색으로 변해버렸다. 아래입술이 푸들푸들 떨리고 온몸에 경련이 이는듯했다.

《너희네 넷, 그리구 맞은 애들 모두 해서 몇명이였니?》

종근에게서 눈길을 떼며 어머니가 하는 말이였다.

《여섯명.》

그 대답을 듣자마자 어머니말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 일본애들은 몇놈이였게?》

《셋.》

어머니의 두눈에서 불이 일어 활활 뿜어나왔다.

《이녀석아, 아무리 덩지큰 놈들이라 해도 너희 여섯이 물어뜯어서라도 사지를 찢어놓아야지 그저 맞기만 하고 보기만 했단 말이냐!》

그날 밤 어머니는 온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분기가 치밀어올라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어데 갈데도 없는 불쌍한것들, 제 둥지도 없는 주제에, 짓눌리우는게 조선사람들의 숙명.

왜놈의 새끼들이 토해낸 말마디들이 어머니의 가슴을 불로 지지는듯한 아픔을 가져왔다. 그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입가로 새여나왔다.

《현해탄을 왜 넘어왔던가. 아, 다시 돌아가자고 해도 갈데가 없구나! 태를 묻은 고향이여도 돌아갈수 없는 땅이 돼버린 저주로운 저…》

어머니는 새날이 밝아왔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정신적인 타격이 온몸의 기력을 깡그리 앗아갔던것이다.

종근이도 잠들지 못하고 태질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어둠속에서 지켜보고있었다. 처음 보게 되는 격노한 어머니였다.

그렇게 괴로와하는 어머니를 대하니 종근이의 어린 마음도 쓰리고 아팠다. 저절로 눈물이 나와 량볼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고향이여도 돌아갈수 없는 땅?! 그게 무슨 뜻일가? 제 나서자란 땅인데 왜 돌아갈수 없단 말인가?)

종근은 어머니가 뇌이는 말이 리해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를 굽어보며 소리없이 울고있었다.

종근은 어려서 본 이때의 어머니모습을 80살에 이른 오늘에도 삼삼히 떠올리군 한다. 하지만 고향에도 갈수 없는 절망이 비낀 한탄을 때없이 터뜨리던 어머니의 그 마음속고충을 그때는 다 알수 없었다.

정종근은 점차 커가면서 어머니의 탄식속에 식민지망국노의 설음이, 재일조선인들의 비참한 운명이 비껴있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였고 동포들의 운명이자 자기자신의 운명이라는데 대해서도 리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쓴바 있다.

《…대가정을 유지하는데서 어머니의 몫은 과반이라 할수 있었는데 어린 나였지만 어머니의 정상을 볼 때마다 집담벽에 기대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군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일본반동들의 조선사람

들에 대한 민족적멸시와 학대가 극도에 달하였을 때였는데 그것이 생계를 위협하는 가난보다 집안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다. 더우기 고향땅을 다시 밟아볼수 있으리라던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도 쓰리고 아팠다.

나는 점차 커가면서 <아, 태를 묻은 곳이여도 돌아갈수 없는 땅!>이라고 목놓아 울부짖으며 탄식하던 어머니의 고달픔에 리해가 가기 시작했다. 부모들이 태를 묻은 땅, 그것은 그들이 태여난 고향이였다. 태를 묻은 땅, 태여난 고향으로 돌아갈수 없는 리유와 그로부터 오는 부모들의 설음과 고달픔이 후손인 나에게도 닥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퍽 후였다.》

고향에서, 고국에서 살래야 살수 없어 떠나왔건만 해방이 되였어도 그곳으로 되돌아갈수 없는것이 더더욱 괴롭고 쓰라린 아픔으로 된 그 시절에 정종근은 아직 세상물정에 눈이 텄다고 볼수 없었다. 세상에 태여난 사람들의 운명, 자기자신의 운명이 그 무엇과 떼여놓고는 생각할수 없다고 여기기에는 너무 어리였다.

□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어느날이였다.

저녁무렵 밖에 나갔던 종근의 아버지가 아이들처럼 뛰여들어오며 큰소리로 웨쳤다.

《여보, 기뻐하오! 우리에게도 조선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조직이 생겼단 말이요!》

어머니는 너무도 뜻밖의 말에 두손을 모아잡고 영문을 몰라 아버지의 얼굴을 얼없이 쳐다보았다.

그러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생활을 지켜주고 보살펴줄 조직이 태여났다는것, 그 조직을 총련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김일성**장군님의 덕분이라고 열띤 목소리로 설명해주었다.

《아유, 이를 어쩌나. 그러면 우리도 기를 펴고 살게 되겠지요?》

《아무렴, 이를데 있소!》

《이젠 됐구나!》

어머니는 앞에 앉아있는 종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다.

종근은 부모들이 그처럼 기뻐하는것을 두번째로 보았다. 조국이 해방되였을 때는 그가 두살이여서 당시의 표상은 전혀 없었다. 그의 뇌리에 새겨진 벅찬 흥분으로 설레이던 부모들의 첫번째 모습은 조선전쟁이 끝났을 때였다.

종근의 집에서는 조선전쟁이 터질 때부터 라지오방송에 매달려 조국소식에 귀를 강구었다. 비록 일본에서 살고있어도 조선민족의 일원으로서 전쟁의 운명, 조국의 운명에 대해 무심히 대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래서 전쟁 전 기간 동포들도 전쟁소식과 더불어 조국인민들과 같은 심정으로 희로애락을 겪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천재적인 지략과 영웅적인민군대와 인민의 결사항전에 의해 드디여 조국해방전쟁이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우리에게도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가 계시고 존엄높은 강국이 있다는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 없어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흥분한 종근의 아버지는 무쇠같은 큰 주먹을 흔들며 모여온 사람들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조선사람들이 간단치 않아요. **김일성**장군님따라 결사항전을 벌렸기에 강대한 미국과 싸워 이겼습니다.》

모여선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환호성을 터치였다. 종근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은 앞날에 대한 희망과 락관으로 밝게 빛나고있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또다시 총련결성을 두고 부모들이 감격에 울고웃으며 설레이는것이였다.

사실상 총련의 결성은 재일조선인들의 운명문제를 두고 언제나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43(1954)년 9월 전후복구건설을 이끄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새형의 해외교포조직을 내올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으며 새 조직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직은 재일조선인의 생활문제, 공화국 공민권옹호문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보장문제, 조국통일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투쟁하는 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이러한 조직은 공화국 정부의 지도밑에 활동하여야 한다는것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해당한 국가적조치들도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현명한 령도에 무한히 고무된 애국적인 재일조선인활동가들은 새형의 해외교포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재일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살았다.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등대이다.》라고 탄성을 터치면서 새 조직의 결성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으며 이를 위한 투쟁에 분발하여나섰다.

동포들의 정의로운 투쟁속에서 드디여 1955년 5월 재일조선인운동사에 력사적계기로 기록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결성하는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되였으며 총련의 선언과 강령, 규약이 열광적인 환호속에서 채택되고 총련의 결성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총련의 탄생은 재일동포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 일대 사변이였다. 이때부터 총련은 민족적애국운동을 불변의 기치로 높이 들고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조직으로서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족애국의 한길을 줄기차게 걸어올수 있었다.

총련이 결성되자 종근의 부모들은 총련조직에 제일먼저 들어 열성껏 활동하였으며 얼마 안있어 아버지는 고가시 총련분회장으로, 어머니는 녀맹분회장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당시 고가시에는 조선사람이 30세대정도 살고있었다.

부모들은 대가정을 먹여살려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총련분회사업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동포들의 집을 찾아다녔다. 일본인들속에 숨어사는 조선사람들을 찾아내여 총련조직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며 생활상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다.

특히 아버지는 조선사람들이 일본당국에 잡혀가던가 멸시를 받는 일이라도 생기면 정정당당하게 성난 호랑이처럼 나서서 싸웠으며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꼭 구출하고야 마음을 놓았다.

원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데다가 마음이 무던하면서도 정의감이 남다른 아버지를 일본경찰들도 마구 다루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정당한 의사를 꺾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동포들을 묶어세우기 위하여 월에 한번씩 분회모임을 가지였다. 여기서는 조국에 대한 학습을 하고 분회가 해야 할 사업을 진지하게 토론하였으며 모임끝에는 항상 서로의 정을 두터이 하고 집단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즐거운 놀이도 진행되였다.

동포들은 이국땅에서의 모든 가난과 설음을 잊고 종근의 어머니가 정성들여 만든 소박한 음식들을 들며 남비와 사발을 두드리면서 《양산도》나 《노들강변》 등을 목청껏 노래부르고 춤을 추면서 자정이 넘을 때까지 즐기였다.

종근의 어머니는 녀맹분회사업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하였다.

어머니는 마음씨 착하고 인정이 무르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것을 락으로 여기는 흔치 않은 녀성이였다. 하기에 고가시의 동포녀성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를 찾아왔으며 그럴 때면 어머니는 그들과 가정사도 의논해주고 생활상애로도 힘자라는껏 풀어주었다.

비록 이역땅에서 살고있었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한민족, 한동포라는 자부가 동포들의 가슴에 넘치게 되였으며 그 나날에 그들은 조국을 알고 조국의 고마움을 페부로 느끼게 되였다.

이렇듯 총련분회사업에 열성인 부모들은 슬하의 자식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각별한 정을 기울였다.

부모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좋고 물맑은 떠나온 고장을 그려보면서 종근이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군 하였다. 정종근이 고령의 나이에 이른 오늘에도 잊지 않고있는 《류달리 큰 밤나무이야기》, 《먼지 한점 날리지 않는 푸른 하늘이야기》 등은 그때에 새겨들은것들이다.

정종근이 부모들에게서 받은 영향가운데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이국땅에 살면서도 민족적정신과 기개만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한다는것이였다.

백의민족은 자고로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이며 조선은 동방례의지국으로 세계에 알려져있었다, 그런 민족, 그런 조선이 국권을 통채로 일제에게 빼앗긴탓에 식민지망국노의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도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주고 담보해줄 총련이 있고 조국이 있다고 거듭 외우던 부모들의 이야기는 종근이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부모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교양을 받으며 종근이에게는 조선사람이라는 자각과 조국산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자라나게 되였다.

세상물정에 눈이 터가면서 그는 조국소식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조국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보다 선명해지고 공고한것으로 자리잡게 되였다.

그무렵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하나로 뭉쳐 전후복구건설로 약진하는 공화국은 부흥의 봄빛아래 인민들의 행복한 삶이 꽃펴나는 살기 좋은 화원으로 전변되고있었지만 미제의 오라를 진 남녘땅은 말그대로 민족의 얼이 퇴색되여가는 음지, 친미사대주의자들의 란무장으로 썩어가고있었다. 남녘땅은 그야말로 미군이 주인행세를 하는 세상, 인민들의 생지옥으로 화했다.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은 절대다수 동포들의 가슴마다를 공화국에 대한 다함없는 동경과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정종근도 비록 일본땅에 살고있었어도 공화국의 정의로운 사회제도에 뜨거운 사랑과 애착을 느꼈다. 무엇이나 다 인민을 위하고 모든것이 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으로 인민이 주인이 된 이 사회

제도를 그는 열렬히 긍정하며 동경하였다.

종근이 소년시절을 보내던 시기는 동포들속에서 민족교육바람이 한창 불고있던 시기였다.

일본땅 곳곳에 조선학교를 세우기 위한 동포들의 애국열의는 하늘에 닿았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있었거나 일본학교에서 공부시키고있던 동포들이 자녀들의 손목을 잡고 우리 학교, 조선학교로 너도나도 찾아왔다.

더우기 조국에서 보내오는 각종 교구비품들을 받아안으며 동포들은 아직은 모든것이 풍족하지 못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멀리 이국의 동포들을 잊지 않는 조국의 사랑,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눈물겹게 절감했으며 오직 이 위대한 사랑의 품이야말로 자기들이 안겨살 영원한 삶의 품이라고 목메여 토로했다.

종근이도 도꾜조선중고급학교에 다니면서 매일 매 시각 조국의 고마움을 폐부로 느끼였다.

그는 조선학교를 이국땅에 보란듯이 세우도록 해준 조국, 동포자녀들이 조선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고 부럼없이 자라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김일성**장군님이 계시여 자기의 앞날, 동포들의 미래는 창창할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어느해 여름날이였다.

이날도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에 열중하던 정종근은 자정이 다 된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그가 집에 다달아 대문을 열려고 할 때였다. 안에서 청높은 말소리들이 오고갔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다급한 걸음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방문을 열려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왔다.

《형님네가 그렇게 비뚤게 나오면 사정보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시켜 수속을 다해놓고 강제로라도 <귀국>시키겠어요.》

종근은 그가 누군지 짐작이 갔다. 남조선의 성주시에 살고있다

는 아버지의 사촌동생이였다. 전에도 그가 부모들을 찾아 일본에 와 달콤한 말로 《귀국》을 설교하던 일이 종근이의 머리에 떠올랐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마약장사를 해먹던 그는 8.15해방후 미군정이 실시되는 남조선에서 협잡과 사기로 돈을 긁어모은 간상배였다. 일제때는 왜놈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돈벌이에 미쳐돌아치더니 미군정하의 남조선에서, 더우기는 전쟁이 끝난 후로는 미국을 상전할애비로 섬기며 못된짓을 하고있었다.

그는 모든것을 권력과 금전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자기 리익이라면 가리는것이 없었다.

하기에 종근의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도 이미전부터 그를 곱게 보지 않았으며 그와 마주서기를 꺼려했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왜 또 현해탄을 건너왔는가. 괴뢰패당의 사촉을 받았거나 일확천금을 노리고? 혹시 총련사업을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꾀여 남조선으로 《귀국》시켜 동포사회를 허물어보려고?

그는 참을수 없었다.

종근이 벌컥 문을 여니 그 사촌동생이라는 사람이 와뜰 놀랐다. 17살 난 종근의 미끈한 체격과 근엄한 안색이 그의 기를 한풀 죽게 하였다.

《오, 종근이로구나. 그간 무고했니? 헌데 퍽 축갔구나. 공부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을테지.》

종근은 입에 침발린 그 소리가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속에 없는 소리가 막 역겨웠다.

《그런데 왜 또 찾아왔어요? 대낮에 뻐젓이 오지 못하고 왜 아닌밤중에 뛰여들어 야단이요? 뭐가 켕겨서 그래요? 부모님들을 강제로 <귀국>시키겠다는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종근의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말을 곱게 해라. 아직 어른이 못된 학생의 말버릇이 그게 다냐?》

아버지의 사촌동생은 년장자랍시고 어성을 돋구었다. 하지만 어딘가 그의 어조에는 맥이 빠졌다.

종근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채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그래 부모님들을 강제로 데려가 어쩌자는거예요? 부모님들이 따라가겠대요?》

《가겠다고는 안했다. 그러나 남쪽에는 선조들의 무덤이 있고 태여난 고향도 있지 않니. 그걸 외면하면야 동방례의지국의 자손들 도리가 아니지.》

종근의 두눈이 아버지에게로 돌려졌다. 사촌동생이라는 사람도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애원이 비낀 눈길로 주시했다.

아버지는 방바닥만 내려다볼뿐 입을 열지 않았다.

방안에 팽팽한 공기가 흘렀다. 한점의 불꽃이 일면 순간에 다 타버릴것같이 바싹 달아올라있었다.

얼마 안있어 아버지가 박력있는 어조로 세상을 향해 선언하듯 말하였다.

《가고 안가고 하는건 네가 상관할바가 아니다. 이 형의 성격을 잘 알지? 미국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남쪽은 내 조국이 아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썩 물러가라!》

아버지는 배포유한 자세였다.

사촌동생이 급해났다. 목적한 흉심을 이룰수 없다고 짐작했는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형님, 형수님. 왜 자꾸 고집해요. 거기로 가야 몇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면서 서로 의지해 살거 아니예요. 그리고 내 사정도 좀 봐줘요. 솔직히 말해 난 빈손으로 돌아가면 죽어야 해요.》

종근의 짐작이 맞았다. 그의 뒤에는 검은 촉수가 뻗쳐 따라다니고있는것이였다.

사촌동생이 방바닥에 엎드려 애걸복걸했다.

이때였다. 방바닥에 묵묵히 앉아만 있던 아버지가 노기가 어린 눈길로 사촌동생을 쏘아봤다. 그러더니 《이놈, 이젠 한다는 수작이…》 하며 벌떡 일어섰다.

철썩!

사촌동생의 뺨에 아버지의 손이 날아들었다. 어찌나 힘을 가해

쳤는지 육중한 몸이 흠칠했다.

《이놈아, 거기 앉아라! 그리고 말해봐. 우릴 끌고가 어찌하려하나? 내 네놈의 속심을 모를줄 아니?》

아버지의 말엔 일리가 있었다. 이놈은 진정으로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여 일확천금을 꿈꾸고있었다.

그전부터 성주에서 여기 일본의 고가시로 사촌동생의 편지가 한달이 멀다하게 날아들었다.

편지내용들에는 이제는 선친들도 안계시고 형님이 가장노릇을 해야 하는데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는가, 자기도 형님을 섬기면서 장사를 해 큰 갑부가 되고싶다는것 등 달콤한 말들로 수다를 떠는것으로 가득차있었다.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꼭 강조하는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향으로 오시되 그간 일본에서 모은 돈과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꼭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것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의 속심을 알아도 너무도 잘 알았다. 종근이네를 귀국시켜 사리사욕을 채우고 괴뢰역적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도 실현시켜주어 막대한 어부지리를 얻자는것이였다.

종근이는 어린 마음이지만 오촌지간 되는 그자의 속심이 역겨워 큰소리로 쏘아붙였다.

《해방후에도, 전쟁후에도 왜놈, 양키들한테 가붙어 비굴하게 살아가는건 여전하구만요. 그 신세에 우릴 어디로 끌고가겠다구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요!》

조카벌 되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그자는 종근의 부모들을 《귀국》시키는데 생사가 달린듯 끈질기게 설복하려들었다.

종근이 아버지는 사촌동생을 노려보며 호령을 내리듯 부르짖었다.

《내 너에게 똑똑히 일러두겠다. 잘 알고 가거라.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만약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한다면 우린 공화국의 품으로 가겠다.》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공화국의 품으로 가겠다!

짧은 말이였어도 수난많았던 인간들의 마음이, 참된 삶을 갈망

하는 사람들의 체험이 함축되여있는 말이였다. 이것은 정종근이 짧았어도 곡절많았던 나날에 마침내 간직하게 된 뼈저린 체험의 웨침이기도 하였다.

□ 조국으로! 김일성장군님의 품으로!

정종근이 태여나 처음으로 배우고 애창한 노래.

그것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이 노래는 종근이의 가슴속에 진정한 조국의 모습,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의 거룩한 위인상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준 노래였다.

어느날 선생님은 칠판에 《**김일성**장군의 노래》라고 큼직하게 또박또박 썼다. 그리고는 풍금을 타면서 숭엄한 감정을 담아 1절부터 3절까지 노래를 먼저 불렀다.

물을 뿌린듯 조용한 교실안에서는 밝고 류창한 선생님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졌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심취되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

한소절씩 선생님이 배워주는 노래를 따라부르는 어린 마음들에도 절세의 위인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학생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히 컸다.

종근은 학교에서 돌아와 부모님들앞에서 이 노래를 씩씩하게 불렀다.

아버지의 눈에 어린 아들이 그처럼 어른스러워보이기는 처음이였다.

어머니도 그런 아들이 너무 대견스러워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아무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정종근은 환갑이 지난 나이에 외국에서 진행되였던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한적이 있었는데 어느날에 있은 연회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른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자기가 난생처음 배우고 오늘까지도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바로 이 《**김일성**장군의 노래》라고 피력했다.

그가 말한 시기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1학년때를 말하는것이였다.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정종근의 마음속에는 조국이라는 숭엄하고 성스러운 실체가 크나큰 산악처럼 자리잡기 시작했다.

도꾜조선중고급학교는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일본에 제일먼저 세워진 조선학교들중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모체학교였다.

당시 총련이 결성된지 얼마 안되였고 일본반동들의 조선민족말살정책으로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던 조건이였지만 학교에서는 총련의 지도밑에 학생들에 대한 민족교육에 가장 큰 힘을 넣고있었으며 조선의 말과 글, 조선의 력사와 지리, 조선의 경제와 문화를 배워주는데 많은 시간을 배정하였다. 수학, 물리, 화학, 기하 등 자연과목교육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진정한 조국이 어디인가를 똑똑히 깨닫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교육의 환경속에서 더욱 커지기 시작한 종근의 조국애는 그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에 가맹하여 조청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 비약적으로 보다 공고해졌다.

그무렵 우리 공화국의 어선 한척이 기관고장으로 일본의 한 항구로 들어오게 되였다.

어느날 그 배에 탔던 조국의 선원들이 도꾜조선중고급학교를 방문하였는데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조국에서 온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학교운동장에서 선원들을 환영하는 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한 예술소품공연이 진행되였다. 조국에

서 온 선원들도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환영집회가 고조를 이루었을 때 한 젊은 선원이 무대로 달려나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청년이 주먹을 틀어쥔 한손을 높이 쳐들고 시랑송을 끝내자 숨을 죽이고있던 학생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환성을 질렀다. 종근이도 넘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어 손이 부서지도록 박수를 치며 이에 합세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감정을 담은 시는 동포학생들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감흥을 주며 깊이깊이 새겨졌다.

조국의 선원이 읊은 그 시가 주는 감동이 얼마나 격렬하고 충격적이였던지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고령의 오늘에도 종근은 그때의 체험을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바로 그 시가 공화국의 유명한 리수복영웅이 지은 시라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나의 감동은 더없이 컸다. 더우기 영웅의 나이가 나보다 한살우인 18살이라는 말을 듣고는 뜨거운 흥분으로 온몸을 불태웠다.

예로부터 넋을 준 사람은 피를 준 사람의 자격을 가진다고 하였

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리수복영웅은 단편의 시로 이국의 우리 청년들에게 조국애의 넋을 심어준 스승, 은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날부터 학생들은 모이면 흥분하여 리수복영웅의 시를 읊었는데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

선원들을 위한 축하모임이 있은 다음날이였다. 학교의 조청조직이 리수복영웅이 남긴 시에 대한 감상을 피력하는 발표모임을 조직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청조직의 초청에 의해 참석한 문학교원이 시에 담겨진 고결한 뜻과 창작수법의 독특함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말하였다. 발언에서 그는 《시를 남긴 리수복영웅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황금만능의 사고방식으로써는 절대로 리해할수 없으며 또 그런 시를 꿈에도 낳을수 없다.》고 하고는 다음 발언자로 정종근을 짚었다.

종근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무들을 일별했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빠른 청춘시절이여서 준엄하고 벅찬 시대의 숨결을 뜨겁게 감수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학급동무들이였다.

모두가 상기된 얼굴로 그를 주시하며 어떤 말이 나오겠는지를 기다렸다.

《피끓는 청춘의 심장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놓은 리수복영웅!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기꺼이 바친 영웅의 시는 이역땅 여기 일본에서 나서자라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여줍니다.

고귀한 삶,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생명, 나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저는 이 엄숙한 물음앞에 이렇게 대답하고싶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여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희망,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조국의 운명속에 나의 생명, 나의 운명이 있으며 조국을 떠난 나의 생명, 나의 운명은 도저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종근의 성숙되여가는 사상정신세계, 숭고한 내면세계가 비껴있는

심장의 토로였다. 그 불같은 웨침은 교실안을 꽉 채우며 동무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었고 장내를 뜨겁게 달구어놓았다. 여러명이 종근의 말에 호응하여 열띤 기세로 연단에 나섰다.

발표회가 끝나가는무렵에 담임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학생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까지도 바쳐 지켜야 할 조국, 우리모두의 삶과 희망, 행복을 꽃펴줄 조국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의 이 말에 흥분된 표정으로 설레이던 학생들이 자못 신중해졌다. 종근의 생각은 끝간데 없이 나래쳐갔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조상대대로 살아오고 자기가 나서자란 땅? 자기의 국적이 속해있는 나라?

아니다. 진정한 조국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라나 고향이 아니다. 나와 가정, 우리모두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 우리가 운명도 미래도 맡길 조국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모든것을 안고있는 조국은?

물을 뿌린듯 조용한 교실안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자고로 많은 사람들이 조국에 대해 말해왔고 또 많은 책자들에도 이에 대해 서술되여있습니다. 학생들도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조국에 대한 개념에 공감해야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말을 마치자 분위기는 보다 엄숙해졌다. 선생님의 물음은 허공에 뜬것이 아니라 매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삶과 떼여놓을수 없는 운명적인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정종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번에는 지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커다란 흥분을 안고 스스로 일어난것이다.

일시에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이번에는 또 어떤 열변을 토로할가 하는 눈길들이였다.

종근이 숙연한 자세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열창하기 시작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

노래는 심장의 메아리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종근이 부르는 노래에 합창으로 화답했다. 꽉 틀어쥔 주먹을 심장에 대고 열창하는 그들의 얼굴마다엔 그 무엇에 대한 확신, 크나큰 믿음의 빛발이 력력했다.

…
로동자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20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노래소리가 더는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열정에 넘친 학생들모두가 그 자리에 굳어진듯 앉을념을 안했다.

이때 정종근이 불같은 토로를 했다.

《억눌리고 짓밟혔던 조선민족, 그것을 숙명으로 감수해야만 했던 우리 겨레에게 재생의 환희를 안겨주신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조국, 그대는 바로 **김일성**장군님의 품입니다!》

학생들은 서로 얼싸안고, 그리고는 서로 가슴을 쭉 펴고 정종근의 심장의 웨침을 되받아 목청껏 터치였다.

조국, 그대는 바로 **김일성**장군님의 품입니다!

밤하늘의 창공을 헤가르며 교실에서 울려퍼진 학생들의 함성이 저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언제나 말없이, 때로는 불같이 학업에 열중해나가던 나날에 정종근은 자기의 심장속에 억년 드놀지 않을 조국애를 신념의 성새로 쌓아나갔으며 그것은 동포들속에 들어가 조청이 맡겨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보다 더 공고해졌다.

중고급학교 3학년 여름방학때 정종근은 미야기현 센다이에 선전활동을 나가게 되였는데 동포선전활동에서 기본은 조선사람찾기운동이였다.

조선사람들을 다 찾아내여 그들에게 민족의 넋과 조국애를 심어주는 이 사업에 종근은 다섯명으로 된 일행의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당시 조선사람이라는 긍지가 적고 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동포들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성도 일본식으로 고치고 숨어서 살고있었다.

정종근과 일행이 어느한 집을 찾아갔을 때였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입니다. 저…》

인사말이 끝나기도 전에 욕설이 터져나왔다.

《우리는 조선사람이 아니다. 당장 가라!》

뜻밖의 광경에 부닥친 그들은 아연해졌다. 온몸에 모닥불을 뒤집어쓴것같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조금 있더니 주인이 물바께쯔를 들고나와서 다짜고짜로 《가라, 가!》 하며 학생들의 발치를 향해 마구 물을 뿌렸다. 그리고는 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너무나 상상밖의 일이였다.

기가 막힌 일이였지만 요만한 난관앞에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종근은 일행에게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종근의 일행은 낮에 밤을 이어 집주인을 찾아가 꾸준히 설복하였다. 처음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던 그들이 종근과 그일행의 진심을 느끼였는지 태도가 차츰 달라져갔다.

《일본땅에서 조선사람찾기운동을 벌려 모든 동포들이 조선사람의 넋을 지니고 조선사람의 긍지를 가지고 살도록 하라는것은 **김일성**장군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입니다.》

종근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이라는것, 여름방학을 리용하여 조선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조선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며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여 민족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선전활동을 하고있다고 차근차근 설명하여주었다.

주인내외는 공감이 가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종근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나라가 없고 령도자가 없다나니 왜놈들의 온갖 천대와 멸시속에서 살았으나 지금 우리에게는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고 진정한 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지금 천리마의 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으며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일행이 가지고 온 화보를 주인내외는 오래동안 눈길을 떼지 않고 보았다. 종근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선사람이라는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억세게,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한다고, 자식들을 조선학교에 보내여 공부시킴으로써 조선사람의 넋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정종근과 일행이 선전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였다.

아들을 데리고 역전에 나온 집주인은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였다.

《고마워요, 학생들. 학생들이 아니였으면 나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번하였나요. 나는 조선사람으로 다시 태여났어요. 이제는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면서 살겠어요. 그리고 조국의 품,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언제든 꼭 찾아가겠어요.》

퍽 후날 귀국선에 올라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그 일가는 오매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녔으며 조국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 높은 국가표창을 받아안는 영

예도 지니였다.

언제인가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실현기념일을 축하하는 방송야회의 연단에서 정종근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사회주의대지에 몸담고 애국의 한길에 한생을 바칠 각오를 가지게 된것도, 그 길에서 참다운 인생의 영광을 맞이할수 있은것도 오로지 저의 심장속에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확고한 마음의 기둥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의 품이였다. 바로 이 신념의 기둥이 있어 거치른 이국땅에서도 종근은 행복했고 당당했으며 운명적인 선택도 주저없이 할수 있었다.

간악한 미일반동들과 괴뢰역적패당의 끈질긴 방해책동이 무서운 회오리바람처럼 란무하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1959년 12월 재일조선공민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실현이라는 커다란 사변이 일어났다.

이 민족사적인 장거는 세월의 흐름이 가져다준것도 아니였고 력사의 필연으로 이루어진것도 아니였다.

재일동포들의 피눈물나는 이국살이를 두고 언제나 가슴아픔을 금치 못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귀국념원을 실현시켜주시기 위하여 일찍부터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 조국과 민족,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마침내 12월 11일 사랑의 첫 귀국선이 일본 니이가다항에 입항하게 되였다.

세계에 류례없는 재일조선공민들의 공화국에로의 집단적귀국.

세계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격찬한 이 민족사적대경사는 해외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어버이사랑과 고매한 은덕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흠모와 경모의 정은 하늘땅에 차넘쳤다. 적지 않은 재일

동포들이 비록 고향은 남조선에 있었지만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동경하면서 귀국을 열렬히 소망하였다.

정종근은 이러한 벅찬 현실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였다. 말하자면 졸업을 앞둔 시기에 있던 그앞에 그처럼 희망하는 대학공부를 일본에서 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조국에 귀국하여 그 꿈을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섰던것이다.

그때 일본에서 조선청년들이 대학을 다니는것은 매우 힘든 일이였다.

대학생 한명이 일년에 바치는 공납금은 너무나 비싸서 평범한 가정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일본반동들은 민족차별정책에 악랄하게 매여달리면서 조선청년들이 일본의 대학에 가는것을 여러모로 방해하였다.

하지만 바다건너 사회주의조국에 귀국하면 누구나 희망하는 대학에 무료로 입학하여 공부할수 있다는 희한한 소식이 전해져 대학에 가려는 꿈을 안고있는 청년들을 끝없이 흥분시켰다.

정종근은 등교하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새라새로운 소식에 솟구치는 흥분과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 어제 어느 학급의 누가 부모들과 함께 귀국하였다.

— 조국에서 소식이 왔는데 누구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고 누구는 김책공업대학(당시)에 입학하였다.

— 조국의 대학들에서는 학급전원이 최우등을 하여 신문에 굉장히 소개되였다.

…

이러한 소식들은 졸업기에 있는 학생들의 가슴을 무한한 선망과 동경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귀국한 재일동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일일이 풀어주시였다는 소식, 갓 귀국한 젊은 부부의 집을 찾으시여 그들의 희망과 요구대로 대학에서 공부

하도록 배려해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신 소식 등 동포들의 귀국소식이 전해지자 재일청년학생들의 심장은 터질듯 부풀어올랐다.

그들의 심장은 이렇게 웨치고있었다.

가자, 조국으로! **김일성**장군님의 품으로!

종근이에게 결심할 때가 왔다. 운명은 문을 두드리고있었다.

어느날 종근은 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터놓으리라 작정하고 어머니의 동정을 살폈다.

어머니는 이미 아들의 심리를 손금보듯 꿰들고있는 상태였다. 어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자식생각은 순간도 흘리지 않는것이다.

어머니가 먼저 종근에게 말을 뗐다.

《왜 갑자르고있니? 어서 털어놓으렴.》

용기를 낸 정종근이 단독으로 귀국할 의향을 조용하나 저력있는 목소리로 뇌이였다.

언제든 그 말이 튀여나오리라 짐작하고있은듯 어머니는 놀라는 기색이 아니였다. 아버지도 역시.

부모들은 자식의 귀국결심을 자못 심중히 대했다.

그러던 1962년 3월 어느날이였다.

따뜻한 봄빛이 대지에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던 그날 뜻밖에도 학교교장이 종근을 불렀다.

못내 대견한 표정으로 그를 한동안 바라보던 교장은 저력있는 음성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50돐경축 재일본청소년축하단이 조직되게 되였는데 학교를 대표하여 종근학생도 선발되였다고 말하였다.

종근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굳어졌으나 차츰 흥분과 격정이 서서히 가슴속에 차오르기 시작하였다.

(내가 영광스럽게도 대표단에 뽑히다니…)

종근의 얼굴표정을 유심히 살피던 교장은 축하단에 뽑히여 조국에 가는 학생들은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그곳에 떨어진다는것, 귀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학교적으로 충분히 토의하고 동무를 선발하였다는것,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50돐경축 재일본청소

년축하단으로 가는것만큼 영광스럽기도 하고 희망하는 대학에도 갈수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열심히 배워 약동하는 조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까지 하였다.

학교는 물론 종근이 사는 마을에 그가 축하단성원으로 추천되였다는 소문이 쫙 퍼지였다. 친구들과 학우들, 마을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축하한다고, 정말 잘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어떤 학급동무는 자기도 축하단성원으로 망라되게 도와달라고까지 간청했다.

어느날 정종근은 진지한 표정으로 부모들과 마주했다.

종근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한번 말씀드리는거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철부지가 아닙니다.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생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바쳐야 하며 또 그 생을 어디서 빛내일수 있겠는가를 잘 알고있습니다. 조국이 저를 따뜻이 안아줄것입니다. **김일성**장군님의 품이 저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있었다.

《용타, 내 아들아! 근심만 앞세운 우리보다 네가 낫구나. 너의 결심대로 조국으로 훨훨 날아가거라.》

절절한 심정을 담아 말하는 어머니의 두볼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드디여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졸업식날이 왔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된 졸업식에서는 먼저 교장이 발언하였다.

어디에 가서든지 모교를 잊지 말며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나가자고, 특히 축하단성원으로 조국에 가는 학생동무들은 크나큰 영광을 언제나 간직하고 공부를 잘하여 조국번영의 대들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의 말은 정종근을 비롯한 졸업생모두의 심장을 울렸다.

상기된 학생들의 얼굴이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모두가 일어서서 열렬한 박수로 교장선생의 발언에 호응하였다.

정종근은 뜻깊은 학창시절의 나날들이 떠올라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다. 더우기 이제는 정다운 동무들과 다시는 만날수 없다는 생각으로 몹시 가슴이 저려들었다.

교가를 부를 때에는 모든 졸업생들이 목메여 눈물을 흘리며 서로서로 뜨거운 손들을 굳게 잡았다. 종근은 청춘의 첫 시절을 함께 보낸 동무들과 통일된 조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굳은 언약을 나누며 뜨겁게 악수하였다.

며칠후 그는 고가역전에서 수많은 동포들과 친구들의 바래움을 받으면서 니이가다항으로 향하였다.

우람찬 귀국선이 정박하고있는 항구는 명절일색이였다.

수풀처럼 펄럭이는 공화국기발들, 노래소리, 웃음소리, 취주악소리, 찾고 부르는 목소리…

그야말로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 항구의 구내는 파도처럼 설레이며 흥성거리고있었다.

공화국기를 든 사람들이 서서히 배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정종근은 며칠새 퍼그나 수척해진 어머니의 어깨를 껴안으며 작별인사를 하였다.

어머니는 밝은 안색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종근아! 너는 영광스럽게도 **김일성**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축하하는 대표단성원이 되여 조국에 가는구나.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이 엄마도 기쁘다. 조국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여 조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다. 자주 편지를 쓰거라. …》

《아버지, 어머니! 근심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바라는대로 조국의 훌륭한 아들이 꼭 되겠어요.》

종근은 석별의 정을 안고 부모님들앞에 큰절을 올렸다. 이때 아버지의 손이 그의 어깨에 와닿으며 웅글진 목소리가 울렸다.

《가거라. **김일성**장군님의 슬하에서만이 인생의 뜻을 꽃피울수 있다.》

과묵한 성격이여서 웬간해서는 내심을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의 말

인지라 종근은 맘속으로 이 말을 깊이 새기며 배에 올랐다. 후날 종근은 아버지가 해준 이 말의 참뜻을 자기 인생의 걸음걸음마다에서 페부로 절감하였다.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오색풍선이 하늘가에 날아오르는 속에 귀국선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미구하여 새 생활이 펼쳐질 그곳으로 인생의 큰뜻을 품은 사람들이 달음질쳐가고있었다.

2. 조국과 생의 포부

□ 포부는 애국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만리창파를 헤가르며 귀국선이 청진항에 도착한것은 1962년 4월 3일이였다.

조국은 뜨거운 정을 안고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돌아오는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항구내는 물론 숙소로 가는 연도에도 꽃다발과 기발을 든 청진시민들이 떨쳐나와 꽃바다를 이루었다. 시민들모두의 얼굴에 흘러넘치는 진심어린 동포애의 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정녕 조국인민들은 한피줄을 이은 친혈육, 친형제임을 종근은 후덥게 젖어드는 감동속에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난생처음 보는 뜻밖의 광경에 어리둥절해진 종근은 마음속에 감동과 감사의 정이 가슴 한가득 고여올라 저절로 눈앞이 뿌잇해졌다.

조국에서의 하루하루는 꿈같이 흘러갔다.

정종근과 축하단일행은 렬차를 타고 오매불망 가고싶던 평양,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게 되였다.

평양으로 가는 기차칸에서 흘러가는 조국산천을 부감하며 종근은 창조와 비약으로 약동하는 조국의 모습과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에 넘친 근로자들의 혁명적기백을 폐부로 느꼈다.

기차에서 내린 일행은 대형뻐스를 타고 시내거리로 향하였다. 차창밖으로 봄을 맞이한 평양의 아름다운 풍경이 영화화면처럼 흘러지나갔다.

뻐스가 드넓은 **김일성**광장을 지나갈 때였다.

아, 이것이 영화나 잡지, 신문들에서 보군 하던 **김일성**광장이로구나!

저기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하시던 광장의 주석단이구나!

모두가 환성을 올리였다.

총을 메고 훈련하는 로농적위대원들의 모습이 이채롭게 눈에 안겨왔다. 전민이 무장한 금성철벽의 내 나라, 내 조국의 장한 모습을 보는것같았다.

종근은 목을 빼들고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축하단일행을 안내하던 처녀의 말에 의하면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3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준비를 한다는것이였다.

정종근은 조국에서 보는 모든것이 참으로 새롭고 인상깊었다. 며칠어간에 만난 사람들, 겪은 일들에서 느끼는바가 실로 컸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박하고 거짓을 몰랐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고 화려하고 번쩍거리는것은 많지 않았어도 누구나 고르롭고 평등했으며 랑만과 활기에 넘쳐있었다.

이것이 왜 종근의 가슴을 그리도 크게 울리는것일가?

종근은 지금껏 일본땅에서 살면서 사회의 온갖 불의를 보아왔으며 또 그속에서 살아오면서 그에 도전하여왔다. 불의는 어디나 독버섯처럼 돋아나 사람들을 괴롭히고있었다.

그러나 여기 공화국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의롭고 장한것을 곳곳에서 찾아볼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건전하고 순박하면서도 자부심에 넘쳐 살아가고있었다.

4월 14일 저녁이였다. 재일본청소년축하단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50돐을 경축하는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관람에 초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평양대극장 초대석에 나오시였다.

환영곡이 울리고 장내를 진감하며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축하단 단장이 위대한 수령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올리고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단장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청소년대표들을 향해 다정히 손을 흔들어주시였다.

아, 꿈결에도 그리웁던 위대하신 수령님!

일본에서 전설로만 들어오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을 몸가까이에서 뵈옵게 된 종근은 너무나 격정에 사무쳐 심장이 터질것만 같았다.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속에 박수를 치며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그날 무대에는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미제를 때려부신 강철의 령장,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를 바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끝없이 경모하며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담아 노래와 춤이 펼쳐졌다.

4월 25일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30돐경축 조선인민군, 로농적위대 열병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초대석에 자리잡은 종근은 또다시 몸가까이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뵈옵게 되였다.

천재적예지가 빛발치는 안광, 봄빛같은 자애가 넘쳐흐르는 환하신 미소, 전설적영웅의 산악같은 담력과 용맹이 비낀 활달하신 몸가짐,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절세위인의 위대한 모습은 그의 넋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때려부시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 조선인민군과 전후에 조직된 로농적위대의 위력이 남김없이 시위되였다.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열병종대들,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각종 포와 땅크들…

종근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난생처음 보는 장엄하고 격동적인 광경이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그렇듯 강위력한 혁명무력이 있기에 우리 조국이 강대하다는 새삼스러운 확신으로 마음이 든든해졌다. 뜻깊은 행사들은 종근에게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였고 귀중한 체험으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30돐 경축행사가 진행된 후 축하단을 안내하던 성원이 다음날 귀국성원들에 대한 담화가 있으니 자기의 희망을 써내라는 지시를 주었다.

종근은 심각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조국앞에 자기의 생의 포부를 명백히 밝힐 때가 왔던것이다.

그의 뇌리에 귀국하기 전 부모들이 늘 자기들의 소망에 대해 하던 말이 떠올랐고 도꾜조선중고급학교시절 담임선생과 과목담당선생들 특히는 축하단에 뽑히웠을 때 교장선생이 절절히 하던 당부가 떠올랐다.

그들의 말, 그들의 당부를 다 합쳐 쥐여짜니 하나의 종자가 우렷이 떠올랐다.

포부는 애국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종근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공상을 하였다. 하지만 그 공상의 근저에서는 포부는 애국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희망, 자기의 전도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길에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중앙에서 내려온 일군과의 담화가 있었다.

그 일군은 종근에게 왜 선박공학을 지망하는가고 물었다.

종근은 선박공학은 학문적으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과학이라고 본다, 때문에 선박공학을 배우면 건축공학 같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부를 할바에는 선박공학을 하고싶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일군은 선박공학을 하려면 김책공업대학(당시)에 가야 한다는것, 동무도 아는것처럼 선박공학처럼 복잡한 학문, 어려운 공학은 없다고 하였다. 다시한번 심중히 생각해보라는 말이나 같았다.

그러나 종근의 결심은 드팀이 없었다.

다른 학생들도 다 담화가 끝났다.

4월 27일 아침에 귀국성원들의 배치가 발표되였다. 종근은 김책공업대학으로 가게 되였으며 학부와 학과는 대학에서 선정하게 되여 있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대학에 가려면 입학시험을 치고 합격되면 입학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김일성**원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속에 시험도 치지 않고 제일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였으니

그 기쁨과 감격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가 없었다.

종근은 보잘것없는 자기를 위대한 수령님 탄생 50돐경축 축하단성원으로 조국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희망과 포부대로 김책공업대학에서 마음껏 공부할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였다.

그는 이 소식을 일본에 있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났다.

한편 종근은 막상 소원대로 김책공업대학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걱정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공화국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다음가는 일류급대학인 김책공업대학에 입학하여 그 대학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갈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일본에서는 이만한 일류급대학에는 수재들만 입학할수 있었던것이다.

게다가 이미 각오는 되여있었지만 정작 생활환경이 전혀 다르고 생활조건이 집과 같지 않은 기숙사에서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노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몹시 걱정되였다.

그때의 자기 심정을 정종근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다.

《자그마한 쪽배가 대양을 건너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할 시각이 왔다. 그 쪽배가 바로 나였다.

거치른 파도와 태풍을 극복해야 하며 항해도중 식량과 물도 떨어질수 있으며 또 어떤 예견치 못했던 사고에도 부딪칠수 있었던것이 쪽배였다. 이것을 극복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수 있을진대 그때의 내 심정은 착잡하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나 목적지에 가야 하며 그 길만이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고 부모님들과 형제들, 선생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종근은 어떤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도 그것을 용감하게 극복해갈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종근은 김책공업대학으로 갔다. 관록있어보이고 틀진 대학학장이 그를 친절하게 맞이해주었다.

학장은 그가 김책공업대학에 입학하게 된것을 축하한 다음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될것이 없겠는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공부를 하였는가, 취미는 무엇인가 등을 세세히 물었다.

이슥하여 그는 종근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학생은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싶습니까?》라고 점잖게 물었다.

정종근은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 선박공학을 공부하고싶다고, 조국의 선박공업발전에 한몫하고싶다고 가슴속에 품고있던 포부를 서슴없이 터놓았다.

학장은 리유를 물었다. 종근은 미리부터 굳혀온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저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시절 설계를 가르쳤던 김종순선생의 영향을 받아 건축기사를 동경한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일본땅에서 살아온 저의 어머니는 한때 건축기사, 설계기사, 선박기사가 되면 돈벌이가 좋고 잘산다고 하면서 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허나 전 귀국에 대하여 생각할 때부터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나의 전도를 구상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 면이 바다인 해양국입니다. 따라서 조국이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하자면 무엇보다 선박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5대양을 공화국기발을 단 조국의 선박들로 꽉 차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것입니까.》

종근의 대답을 들은 학장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매우 만족해하였다.

《높은 산에 오르려는 사람만이 산으로 통하는 길을 찾을수 있다. 난 학생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 말을 생각했소. 그리고 학생의 희망과 포부는 분명 애국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단정했소. 종근학생이 결심을 참 잘하였습니다.》

학장의 이야기에 종근은 놀랐다. 자기의 말이 그처럼 커다란 무게를 가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그였다.

종근은 학장의 말을 통하여 선박공학부는 김책공업대학에서 학문

적으로 제일 어려운 학부이라는것, 그래서 학생들도 대다수 수재들만 모여있다는것, 선박공학부는 전국적인 대학생학과실력경쟁에서도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학부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학장은 그 자리에서 해당 일군을 불러 종근을 희망대로 선박공학부에서 공부시키도록 지시를 주었다.

종근은 학장방에서 나는듯한 기분으로 나왔다. 주위의 모든것이 자기를 쳐다보며 무엇인가 속삭이는듯하였다. 하늘에는 부풀어오른 종근의 마음처럼 흰구름이 두둥실 떠있었다.

(아, 내 기어이 한생을 바쳐 조국을 받들리라. 그 길에 나의 희망, 나의 포부도 꽃펴나리라!)

하늘보다 크고 웅장한 포부를 지닌 종근의 앞길에 은혜로운 조국은 비약과 발전의 큰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 해빛넘치는 화원에서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없을것이다. 꾸짖어도 매질을 해도 아프지 않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대가를 모르는 그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빛이며 열이다.

대학생활을 시작한 첫 시기에 어머니의 모습이 종종 종근의 꿈에 나타나군 하였다. 헌데 그 어머니가 19살의 혈혈단신으로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그에게 다가와 생활의 매 순간순간마다에서 맴돌았다.

과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따뜻이 품어주려 현해탄을 건너 찾아오기라도 했단 말인가.

종근이는 대학초기부터 어머니의 그 사랑에 비길데 없는 따뜻한 사랑을 매일 매 시각 체험하며 공부하였다.

전쟁이 끝난지 10년도 되지 않았던 그무렵 공화국에서는 인민경

제의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의 속도로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고있었다. 온 나라가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하여 부글부글 끓고있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누구나 다 서로 돕고 위해주는 공산주의미풍이 사회전반을 지배하면서 나라가 하나의 아름다운 대화원으로 변모되여가고있었다.

선박공학부 학부장의 안내를 받아 정종근은 자기가 공부할 강의실에 들어섰다. 학부장의 소개가 끝나자 학급동무들이 그를 친혈육처럼 친절히 맞이하였으며 해가 잘 비쳐드는 위치의 책상에 앉게 해주었다.

학부장은 강의실에서 나오자 종근을 곧장 기숙사로 데리고 갔다.

그가 들게 된 호실은 깨끗하고 정돈이 잘되여있었는데 크지는 않아도 다섯명이 생활하기에는 불편이 없을것같았다.

다섯명의 호실성원들중에서 두명은 인민군대에서 단련된 제대군인들이였다. 그들은 남들이 잠든 깊은 밤에도 그날 배운 학습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새날을 맞이하군 하였다.

호실성원들은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돕고 이끌었고 남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는 이 현실을 목격하면서 일본에서 들었던 소문, 조국에서는 학급전체가 최우등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풀수 있었으며 이것이 자본주의교육과 구별되는 사회주의교육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느날이였다. 공부를 시작한지 며칠이 지나 학급반장이 종근이에게 새 이불과 모포, 교복 그리고 한달기간의 식권을 가져왔다.

종근은 당황하였다. 그 값을 어떻게 낸단 말인가.

그는 이불과 모포, 교복, 식비값이 다 합하여 얼마인가고 물어보았다.

학급반장은 왜 돈을 당장 물자고 그러는가 하며 픽 웃었다. 그러니 종근은 값을 지불해야 하는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믿어졌다.

학급반장이 정색해서 말했다.

《우리 나라는 무료교육제도요. 세상에 없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근이 입을 열었다.

《저도 그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생들이 먹고 입는 것도 다 무상이진 않겠지요?》.

학급반장은 사람좋게 웃으며 동무는 잘 모를수 있다고,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라고 모든것을 무상으로 공급해준다고, 조금 더 지내보면 알겠지만 우리 대학생들모두는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종근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뇌리에 일본에서 학비를 내기 위해 별의별 역사질을 해가면서 고학하던 대학생들, 먹지 못해 결핵과 같은 질병에 걸려 신음하면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던 대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종근에게 학급반장이 물론 조국에서는 아직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지만 대학생들이 근심을 모르고 학업에 마음껏 열중할수 있도록 배려를 돌리고있다고, 그것은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의해 베풀어지고있는것이라고 감동어린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아, 이역에 있는 어머니도 줄수 없는 한없는 사랑! 과연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한단 말인가.)

이때 민청위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며 울렸다.

《종근동무, 교무부에서 빨리 오라는 련락이요.》

종근이가 교무부로 가니 교무부장이 부모님들에게서 온 편지라고 하면서 봉투를 내밀었다. 그러면서 어서 읽어보고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회답할수 있으면 어서 편지를 쓰라고 다정하게 일렀다.

종근은 그 자리에서 편지봉투를 뜯었다. 그의 부모들이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통해 그가 김책공업대학에 입학했다는것을 알고 보낸 편지였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종근이가 김책공업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처럼 기쁜 소식을 왜 알려주지 않는가? 건강은 어떤가? 어머니가 몹시 근심하고있으므로 시급히 회답을 보내라고 하

였다.

편지를 읽고난 종근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책감에 얼굴을 붉히였다. 귀국한지 몇달 지났어도 소식 한장 전하지 않았으니 이 불효자식을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탓하시였겠는가.

종근은 그날로 부모들에게 다섯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였다. 그는 편지에 제때에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는것, 매일 매시각 조국의 벅찬 현실에 빠져있다나니 편지를 쓸 생각조차 못했다는것, 희망대로 김책공업대학 선박공학부에 입학하여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공부하며 생활하고있다는것, 그리고 조국에서는 대학생들이 먹고 입고 쓰며 공부하는것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는것, 공부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썼다.

편지를 보낸지 얼마 되지 않아 회답편지가 왔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다.

어머니는 편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다고 하면서 희망대로 김책공업대학에 입학하였다니 정말 기쁘다는것과 공부를 잘해서 장차 조국의 훌륭한 아들이 되길 바란다고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편지에 터놓았다.

그후부터는 아들과 어머니사이에 편지가 자주 오갔다.

그러던 어느날 대학강당에 학생전원이 모이게 되였다. 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임이였다.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나라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매월 장학금을 내준다는 학장의 말이 장내에 울려퍼지자 여기저기에서 기쁨과 행복에 겨운 탄성이 터져올랐다. 종근이도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어 머리를 푹 숙인채 말없이 눈굽만 적시였다.

(돈을 받으면서 공부하다니?! 이 꿈같은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면 정말 믿을가.)

그에 대해 전하는 종근의 편지에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답을 보내여왔다.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것, 예로부터 결초보은이란 말이 있는데 종근이 너는 항상 이 말을 새기고 공부해야 한다는것, 네가

어떻게 공부하고 성장하는가를 여기 고가시사람들은 물론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선생님들이 주시하고있다는것…

어머니의 회답편지에 담겨진 의미를 새겨보며 종근은 조국의 사랑, 부모들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할 결심을 더욱 가다듬었다.

대학 2학년에 올라가면서 종근은 과정안에 따라 두달동안 생산실습을 하게 되였다.

실습장은 지방에 위치하고있었다. 종근은 처음에 이런 생소한 곳에서 두달을 어떻게 보내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막상 실습에 들어가니 재미있었다. 실습과정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휴식시간마저 바쳐가며 실습과 관련한 학습을 하기도 하였다. 더우기 종근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준것은 동무들의 사심없는 보살핌이였다.

대학에서의 생활은 물론 외지에 나와서도 학급동무들은 종근을 위해 왼심을 많이도 썼다.

그때 식사로는 잡곡이 절반 섞인 밥이였는데 숙소직원들과 학급동무들은 종근이 위병을 앓고있다는것을 알자 그에게는 백미밥만 먹이려고 애썼다. 그리고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애로와 어려움도 서로 도와주며 함께 극복해나갔다.

어느날 밤 주변의 산에 올랐던 종근은 발을 헛짚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게 되였다.

그가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이였다.

(내가 왜 침상에 누워있는가? 여기가 어디인가?)

몸을 움직여 일어나려 했으나 허사였다. 온몸이 쑤시고 움직일수 없었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오며 반색을 했다.

《아이, 정신을 차렸군요. 복도에 선생님과 동무들이…》

간호원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반가운 선생님과 학급동무들이 달리다싶이 호실로 들어섰다.

종근학생! 종근동무!

이렇게 부르는 그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있었다. 이들을 보

며 종근은 불시에 차오르는 격정에 목이 꽉 메여 머리를 돌렸다.

다음날 병원에서는 종근의 몸상태에 대해 숙소에 알려왔다.

피를 많이 흘려 수혈을 하지 않으면 원상태를 회복하기 힘들다는것, 오른쪽다리는 골절되여 수술을 해야 한다는것, 위출혈을 심하게 하였으므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것.

종근은 락심하였다. 자기가 혈혈단신이라는 생각이 앞서며 눈앞이 캄캄하기까지 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랴 하는 생각이 들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그 시각 숙소의 전체 성원들과 동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근의 병치료를 위한 열기띤 토론을 하고있었다.

저저마다 피를 바치겠다고 나섰다. 가지고있던 돈을 꺼내놓으며 몸보신에 필요한 보약과 영양식품을 구입하여 종근이에게 보내달라는 숙소직원들도 한둘이 아니였다.

한편 이 사실이 멀리 떨어진 평양의 대학에도 알려졌고 학부장선생을 비롯한 대학일군들과 대학병원의 유능한 의사들이 실습장을 향해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종근이 1차수혈을 하는 날 실습생들과 숙소소장을 비롯한 숙소직원들이 자기들의 피를 바치겠다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을 알았는지 주변의 인민들이 병원으로 달려와 저들도 피를 바치겠다고 하며 저저마다 팔을 걷고 나섰다.

《제 피를 뽑아주십시오! 종근동무와 피형이 같습니다.》

《저주로운 일본땅에서 조국을 찾아온 대학생이 어디 남입니까. 우리와 한피줄, 한형제인데 우리 군내 인민들이 어떻게 가만있을수 있겠습니까.》

《종근학생을 꼭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무엇이 요구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병원 출입문앞에 모인 각양각색의 사람들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목소리를 침상에서 들으며 종근은 그들이 너무도 고마워 소리내여 엉

엉 울었다.

그때를 회억하여 80고령에 이른 정종근은 이렇게 피력하고있다.

《저는 일생에 그 병원에서처럼 크게 목놓아운적이 없습니다. 온 숙소, 온 대학, 온 군내 사람들이 저를 위해 피를 바치겠다고 소리칠 때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고로 누구에게나 지어 혈육에게조차 피만은 주기를 서슴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주의조국에서 저를 놓고 펼쳐진 그때의 현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사회주의조국이야말로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하나의 대가정, 하나의 대화원이 아니겠습니까. 자애로운 태양이 비쳐주는 해빛이 없다면 그 대가정, 대화원이 어떻게 꽃펴날수 있겠습니까.

꿈속에 나타나 저의 몸을 매일 매 시각 감돌던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그 해빛이였습니다.

그 해빛넘치는 화원에서 조국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고 그 희망, 그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학업에 전심전력할수 있었습니다.》

정녕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 펼쳐주신 사랑의 대화원은 삶의 토양이고 빛이였다.

□ 《무서운 정열가》의 향학열

대학시절에 학우들이 정종근에게 붙여준 별명 아닌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서운 정열가》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그의 불같은 정열에 탄복하여 학업에 열중하지 않거나 《총명한 머리》를 믿고 건들건들하는 학생들에게 훈시할 때면 늘 《무서운 정열가》를 좀 보라, 그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탐구하고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하군 하였다.

실제적으로 정종근은 공부밖에 몰랐다. 그가 다니는 길은 교실과 도서관, 기숙사를 오가는 길뿐이였다. 수업이 끝나면 그는 늦도록 도서관에서 책속에 파묻혀있군 하였다.

대학의 많은 선생들과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정종근을 례사롭게 보지 않았다. 그들은 《정종근의 포부와 희망은 망망대해처럼, 푸르른 창공처럼 크고 넓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해 정종근은 2개월간 어느한 조선소에서 실습을 하게 되였다.

실습교원은 외국에서 류학한 선생이였는데 그로 말하면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고 배추진기와 배구조력학분야에서 권위자라고 할수 있었다.

종근과 일행은 시내에 자리잡고있는 수산대학 기숙사에 숙소를 잡았다.

오전에는 아침식사를 마친 후 12시까지 조선소에서 배설계방법과 배건조공정에 대한 실습을 하고 오후에는 식사를 한 다음 그날 배운 실습내용과 선박건조학에 대한 강의를 받았다.

선생은 학습에 대한 요구성이 대단히 높았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에게 실습을 지도하고 강의를 하였으며 매 학생들에게 과정설계과제를 주었다.

그 과정설계과제를 실현하려면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계산을 한 다

음 설계도면까지 완성하여야 하였지만 선생은 저녁에는 또 1~2시간정도 질의문답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론쟁을 붙였으며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엄격하였다.

어느날 선생은 《배가 움직일 때 배주변에는 동방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것이 배추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즉 추진기의 추진력을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문제는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이 문제를 낸것은 학생들이 선박에 대한 다방면적인 공부를 얼마나 하고있는가, 학생들이 배워주는 한계를 벗어나 다방면적인 학습을 하고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이 서로 쳐다보며 머리를 굴렸으나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각이한 주장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전혀 당치않은듯 선생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이 없었다.

그러던 선생이 《정종근학생, 동무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오.》라고 말하며 종근에게 눈길을 주었다.

종근은 자리에서 일어나 류창하게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배의 추진력은 추진기날개의 양력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에 동방류가 생기면 추진기날개에서의 물흐름이 높아지고 결국은 양력이 높아지기때문에 추진력을 증가시킨다고 봅니다.》

선생은 만족한 어조로 정확히 대답하였다고 말했다.

학생들모두가 종근을 쳐다보며 감탄을 하는데 《그럼 배가 동요할 때 회전중심은 어디 있는것같습니까?》 하는 선생의 질문이 또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무게중심을 축으로 하여 동요한다고 대답하였다.

선생은 마지막에 또 종근을 보고 학생동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어보았다.

종근은 배는 홀수면에서 홀수면밑에 있는 부피와 배의 무게가 균형을 이룬다, 때문에 배가 동요할 때는 홀수면의 면적중심을 축으로 하여 동요한다고 대답하였다.

선생은 《종근학생은 피타고라스부력의 법칙을 잘 알고있구만.》 하면서 놀라와하였다. 후날 선생은 어느한 기회에 강좌의 교원들에게 종근학생은 향학열이 대단히 높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종근은 대학적으로 수재로 소문이 났으며 어떤 과목에서든 막히는것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원대한 포부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각오를 안고 학습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어느날 도서관에서였다.

이날도 종근은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지만 자리에서 뜰념을 안했다. 대학적으로 진행되는 외국어경연준비를 다음날까지 끝내기로 계획하였었는데 부족되는것이 시간이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외국어참고서를 손에 펼쳐드는데 등뒤에서 로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참 듣고있던 종근이 갑자기 로어로 《가만!》 하고 그들의 대화를 중지시켰다.

어리둥절해진 학생들이 종근을 보며 의아해하였다. 종근은 두서없이 억양이 자유롭지 못하고 발음속도가 너무 뜨다는것, 그리고 문장속 어떤 대목에서는 적중하지 못한 단어들이 들어가있다는것 등을 말해주었다. 이것 역시 로어로.

학생들이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종근은 탓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기의 외국어학습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우리 학부와 학과는 서로 다르지만 <외국어학습동맹>을 뭇지 않겠습니까? 동맹책임자는 물론 동무이고.》

종근은 소리내여 웃었다. 그러며 사심없이 서로 돕자고 응해나섰다.

대학기간에 종근이 소유한 외국어실력은 대단하였다. 일어는 물론이고 영어, 로어, 프랑스어, 중어를 완전소유한 그를 외국어강좌의 교원들도 부러워하였다.

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던 다국어경연의 날이 왔다. 대학강당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종근은 두번째로 선박공학부를 대표하여 연단에 나섰다. 매 학

부에서 뽑히운 한명의 학생이 정한 순서대로 출연하게 되여있었다.

그가 나서자 다섯명의 심사성원(두명은 대학의 외국어강좌장과 외국어교원이고 나머지 세명은 외무성에서 초빙해온 외국어전문가들이였다.)들이 차례로 문제를 내놓았다.

처음 맞다든 문제는 영어로 세계 5대양의 서로 다른 해양학적특징에 대하여 10분동안 설명하는것이였다.

문제가 제시된지 20초도 안되여 종근의 입에서 대양들의 특징은 물론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양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물이 거침없이 흐르듯 영어로 흘러나왔다. 어떤 대목에서는 해양학적인 개념에 대한 주해까지 주며 손세를 써가며 이야기했다.

첫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이 끝났는데도 심사석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청중속에선 숨소리조차 새여나오지 않았다.

이윽하여 두번째로 뉴톤의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리론이 선박건조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프랑스어로 대답해보라는 문제가 제시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 역시 사람들을 깜짝 놀래웠다.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문제들도 중어, 일어, 로어로 제시되였는데 청중들은 종근이 답변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심사성원들이 하나같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자 강당을 꽉 채운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에 합세했다.

떠나갈듯한 박수소리에 종근은 어쩔바를 몰라했다. 다년간의 대학생활기간 오로지 학습에만 매진하여온 지난날들이 떠오르며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경연마감에 학장선생의 제의에 따라 다국어경연에서 우승한 정종근의 발언이 있었다. 말하자면 높은 외국어실력의 비결에 대한 그 나름의 견해를 모두가 듣고 그것을 따라배우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종근은 쑥스러운듯 머리를 들지 못했다. 외국어경연에서는 그처럼 당당하고 그처럼 류창했지만 왜 그런지 외국어학습의 비결에 대해서는 사람들앞에 터놓을수 없었다. 한두마디로 그 비결을 말할수

없기때문인가.

하지만 그는 말하고싶은것이 있었다. 아니,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저는 **김일성**원수님의 사랑속에 여기 김책공업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언제 한번 제가 어린시절을 보낸 일본땅에서 겪은 일들을 잊어본적이 없습니다. 그가운데서 한가지만을 말하렵니다.

아홉살때였습니다. 왜놈의 자식들이 조선아이 두명을 트집을 걸어 두들겨패면서 어데 갈데가 없는 불쌍한것들, 짓눌리우는게 너희들의 숙명이야, 제 둥지도 없는 가련한 놈들이라고 뇌까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왜 갈데가 없겠습니까. 왜 저희들에게 제 둥지가 없겠습니까. 어째서 조선사람은 짓눌리우는게 숙명이겠습니까.

저는 혈혈단신으로 현해탄을 건너 조국의 품, **김일성**원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회주의조국은 당당한 제 보금자리이며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은 일제와 미제에게 패망을 안긴 영웅조선, 영웅인민입니다.

저는 그때 조선아이들을 때리며 지껄여대던 놈들을 후에라도 만날수 있다면 도고한 자세로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해줄것입니다.

조선은 죽지 않았다! 우리 조국은 강해지고있으며 앞으로 더더욱 강해질것이다!

저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주추돌이 될 포부를 가슴에 새기고 학업에 열중하였습니다.》

사실이 그러했다.

종근은 오직 이 하나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과학의 세계를 파헤쳐왔다.

또다시 울려나오는 박수소리속에 여기저기서 종근을 찾는 낯익은 음성들이 들려왔다.

그의 손을 덥석 잡는 한사람이 있었는데 선박공학부와 대학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명망높은 김동신교수였다.

선생은 서울에서 대학교수로 있다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에 들어온 학자였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는 선박력학분야의 교원이 없어서 이전 쏘련에서 교수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쏘련에서 온 교수가 어떤 어려운 력학적문제를 제시하였다.

김동신선생은 그것을 완벽하게 즉시에 풀었다고 한다.

쏘련에서 온 교수는 김책공업대학에 김동신선생과 같은 실력가가 있는데 자기가 왜 필요하겠는가고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한다.

김동신교수는 대단한 실력가였다. 그는 전공인 선박구조력학에서 단연 일인자였을뿐 아니라 류체력학, 열력학, 항공력학, 전기공학, 광학 등 모든 면에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고있었다.

김동신교수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선박구조력학이라는 학문을 개척하고 직접 학술적으로도 완벽한 두툼한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교수를 직접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종근학생! 대단하오. 노력하는 사람이 천재를 앞선다는 말이 바로 학생을 두고 하는 말이요. 그 포부, 그 배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냅다 달려보기요!》

김동신교수는 힘있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면서 종근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종근은 그후부터 김동신교수의 개별지도를 받게 되였다.

그 나날속에 그는 교수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

학습내용의 중점을 잘 살리면서도 교과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현실과 결부된 생동한 그의 강의는 모래불에 물을 붓듯 종근의 머리속에 쏙쏙 스며들었다.

현실과 결부된 탐구력을 높여주는데 깊은 주의를 돌린 교수는 론문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자체로 문제를 설정하고 자체로 내용을 전개하며 자체로 완성할것을 요구하였다. 론문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손을 대는 법이 없었다.

일단 론문이 완성되면 아주 세밀하게 내용을 파고들고 검토하여

의견을 주었다. 지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놓칠수 있는 문장의 토, 반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고쳐주었다.

교수는 종근에게 참고도서를 많이 볼것을 요구하였으며 자기가 가지고있는 귀중한 책들도 서슴없이 주면서 지식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도와주었다.

교수는 부모의 품을 떠나 혼자 귀국한데다가 몸도 건강하지 못한 종근을 생각하여 명절날이나 휴식일이면 늘 집으로 초청하였다.

종근은 처음 교수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

방 한쪽면이 천정까지 닿는 책장이였는데 책이 가득차있었던것이다.

아마 몇천권이 되는것같았다. 거기에는 항공력학, 류체력학, 전기공학 등 없는것이 없이 각이한 분야의 책이 주런이 꽂혀있었다.

교수에게는 4시부터 출근할 때까지 그리고 저녁식사후부터 다음날 1시까지 연구사업을 하는것이 매일 어길수 없는 일과처럼 되여있었다.

종근은 그때 과학사업이란 얼마나 험난하고 간고하며 어려운 사업인가 하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으며 교수에 대하여 더욱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였다.

이러한 교수의 영향하에 종근의 향학열은 더더욱 불타올랐고 그 《무서운 정열가》는 선박공학이라는 학문의 세계를 하나하나 점령해나갔다.

어느날 학습지도를 하던 동신교수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제는 대학공부를 펴그나 하였는데 앞날의 설계를 어떻게 하고있소?》

생각을 깊이하고 묻는듯 가느스름하게 실눈을 짓고 종근을 바라보는 교수의 눈에는 은근한 기대가 실려있었다.

뜻밖의 질문에 종근은 눈길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붉힌채로 덤덤히 앉아있었다. 졸업후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지금까지 교수는 종근과 학문상의 문제를 놓고 밤늦게까지 토론

을 하여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좀더 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교수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종근동무는 앞으로 우리 나라 선박공업에서 권위자가 될 꿈을 가져본적은 없소?》

종근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스승의 말속에는 너무나 큰뜻과 요구가 담겨져있었던것이다.

사실 대학기간에 공부를 본때있게 해서 앞으로 선박구조력학분야에서 당당한 실력가가 되고싶은 욕망을 품고있었지만 권위자가 될 생각까지는 감히 할수 없었던것이다.

권위자, 그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높고 힘에 부치는 목표였다.

《제가 어떻게 권위자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착실히 해서 높은 실력을 꼭 갖추겠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청춘의 리상이 높지 못한것이 《겸손》으로 가리워진다면 그것이 결코 장점으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교수는 제자를 깨우쳐주기 위해 뜨거운 심정으로 호소하였다.

《아니요. 로동당시대가 거창한것처럼 우리 대학생들의 리상과 포부도 무한히 크고 높아야 하오. 정동무는 능력으로 보아 결심만 하고 노력한다면 능히 선박설계분야에서 권위자가 될수 있소. 어떻소? 한번 해볼만한 용기가 없소? 이것은 나 개인의 말인것이 아니라 당의 요구이며 조국의 기대요.》

종근은 머리를 숙인채 무겁게 침묵하고있었다. 스승앞에, 시대앞에 책임적인 답변을 하여야 할 운명적인 시각처럼 느껴졌다.

교수는 기대를 안고 종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종근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를 그처럼 믿어주어 고맙습니다. 권위자는 자신없지만 꼭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노력해보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자기 분야에서 권위자

가 되여야 하오.》

스승의 요구는 강경하였다. 그만큼 전망성있는 제자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컸던것이다.

사실 교수는 오랜 교육자의 눈으로 종근의 장래를 내다보고 그의 성장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바쳐왔다.

때문에 상급학년에 올라선 지금에 와서 종근에게 지체없이 생의 목표, 과학탐구의 높이를 지정해주기로 결심한것이였다.

스승과의 뜻깊은 담화를 나눈 이후 종근은 자주 교정의 구내길이나 대동강유보도를 거닐면서 깊은 상념에 잠기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귀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나 그토록 가고싶어하는 이름높은 대학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도록 고마운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선생님들은 제자의 학업을 위해 진심을 바치며 나를 과학탐구의 상상봉으로 떠밀어주고있다. 자본주의일본땅에서는 이런 희한한 일을 상상조차 할수 있는가. 사람은 은혜에 보답할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부모들과 형제들도 내가 조국을 빛내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절절히 고대하고있다. 자식이라면 부모님들의 기대에도 보답해야 한다.

내가 왜 조국에 왔는가. 대학졸업증이나 받고 편안히 지내자는것이였는가. 아니다. 나라의 선박공업발전에 특출하게 이바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그러자면 선박력학분야에서 높은 실력을 가진 권위있는 과학자가 되여야 한다.

그렇다. 이것이 한생을 바쳐 점령해야 할 나의 삶과 투쟁의 목표이며 조국앞에 다지는 맹세이다. …

한없이 뜨거운 지향, 불타는 욕망, 크나큰 포부가 종근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잡게 되였다.

그날부터 종근은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조국앞에 다진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피타는 탐구전에 돌입하였다.

4학년에 들어서면서 그의 학습과 과학탐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 새로운 구상에 기초하여 학습목표를 높이 선정하였다.

그것은 강의나 교과서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선박학계가 달성한 모든 성과와 경험, 최신리론을 소유하는것이였다.

그러자면 방대한 도서, 잡지들을 열독하여야 했다. 종근은 대학교원이나 전문가들도 하기 힘든 학습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세운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5시반이면 어김없이 깨여나는것이 그의 일과였다.

종근은 중앙도서관(당시) 열성독자가 되였다.

공부만 끝나면 곧장 도서관에 가서 골을 싸쥐고 앉아 퇴근종이 울릴 때까지 일어, 영어, 로어 등으로 된 선박과 관련한 도서, 사전, 잡지, 학위론문 등을 열심히 읽고 발취하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오직 공부하기 위하여 태여난 사람같다고 하였다. 대학에서 교직원, 학생들이 흔히 말했듯이 기숙사—식당—도서관을 선으로 련결한 3각형이 그의 행동로정이였다.

후날 정종근은 선박공학분야의 한 과학토론회에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한바 있다.

《김동신교수와 같은 고마운 스승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속에서 나의 향학열은 무섭게 불타올랐다. 아마도 학습에서도, 과학탐구에서도 독불장군이란 말은 통하지 않는것같다.

언제나 변함없이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주며 조국에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수십년세월 쌓아온 자기 지식을 고스란히 나에게 넘겨주는 김동신교수의 모습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참된 우월성을 페부로 느끼였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내 나라의 참모습이였다.》

옳은 말이였다. 참된 인간들이 사는 내 나라, 우리 사회주의제도는 혈혈단신의 정종근에게 있어서 불타는 향학열을 낳는 근본바탕이였고 어엿한 과학자로 자라날수 있게 한 토양이였다.

□ 학창시절이 끝나는무렵에

보람찬 대학생활의 나날이 흘러 어느덧 졸업론문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기간이 다가왔다.

졸업론문은 대학생이 다년간 대학에서 배운 과학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한 지적창조물이며 론문발표는 대학기간 소유한 과학기술적자질과 실천능력을 국가앞에서 검증받는 중요한 계기이다.

종근은 오랜 생각끝에 졸업론문제목을 《1만t급대형화물선의 구조설계》로 잡았다.

론문지도는 김동신교수가 자진하여 맡았다. 교수는 종근의 론문제목을 지지해주었다. 그러면서 론문내용을 대학에서 취급하지 않은 새로운 리론으로 특색있게 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교수가 말한 새로운 리론이란 소성리론을 가리켜 하는 말이였다.

1950년대말 세계선박학계에는 새로운 학문인 소성리론이 등장하여 학자들과 기업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었다.

그런데 당시 대학에서는 소성리론에 대한 파악과 연구는 하고있었지만 강의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다.

종근은 처음에는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다.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리론을 습득하고 전개하는것이 매우 아름차고 복잡한 일이였던것이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교수의 요구는 옳은것이였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라면 학계에 새롭게 등장한 최신과학리론을 외면할수 없으며 대학강의에 구애되지 말고 자체로 연구학습하는것이 마땅한 일이였던것이다.

종근은 최신학문인 소성리론을 자체로 학습하여 졸업론문에 활용할것을 대담하게 결심하였다.

그는 중앙도서관에 가서 《소성계산방법》과 《소성리론》 등 도서들을 밤을 지새워가며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학에서는 선박구조력학강의에서 탄성리론을 배워주고있었

다. 연구기관들에서도 선박설계의 모든 요소들을 튐성한계에서 계산하고있었다.

종근은 연구하면 할수록 확실히 소성리론은 종래의 튐성리론의 제한성을 극복한 리론실천적의의가 큰 최신리론이라는것을 확신하였다.

졸업론문 《1만t급대형화물선의 구조설계》의 체계는 총체적구조설계, 부분구조설계 등으로 되여있었다.

종근은 론문의 모든 계산을 소성리론에 근거하여 풀이하였다. 졸업론문을 학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현실적인 론문으로 만들 결심을 품고 론문작성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쏟아부었다.

3개월간의 끊임없는 사색과 완강한 탐구, 이악한 노력끝에 졸업론문이 완성되였다.

론문이 훌륭하게 완성된데는 김동신교수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깃들어있었다.

론문에서 취급한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 선박학계에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리론을 적용한것으로 하여 수준이 대단히 높은것이였다.

새것은 언제나 순조롭게 태여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끊임없는 의문을 던지는 속에서 그리고 낡은것을 집요하게 고집하는 치렬한 론쟁속에서만이 자기의 진리성을 검증받기때문이다.

아니나다를가 졸업론문변론은 격렬한 론쟁을 동반하였다.

강좌졸업론문발표회를 하는 날이였다.

외국의 어느한 대학에서 선박구조학을 전공한 한 교원은 론문에서 소성리론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고찰하고있는데 대하여 의견을 가지였다. 그는 기존리론인 튐성리론을 고집하면서 까다로운 질문을 계속 들이대였다.

종근은 왜 론문을 힘든 소성리론으로 전개하였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소성리론은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학문이다, 심사원선생은 모든 구조력학적문제를 튐성한계에서 고찰하고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다, 실제로 엄밀한 의미에서 선박구조계산은 소성한계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소성한계에서 고찰하고있는것을 휨성한계에서 고찰하고있는것처럼 생각하면 되겠는가.

론리정연하고 학술적으로 완벽한 종근의 변론은 청중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실상 심사자는 새로운 학문인 소성리론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었던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졸업론문변론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종근의 졸업론문변론은 3시간 30분이나 걸렸다.

결국 그는 3시간 30분동안이나 론쟁을 하였던것이다.

마지막에 김동신교수가 종근학생의 변론이 옳다고 결론을 내려서야 변론을 끝낼수 있었다.

열흘이 지난 후 최종졸업론문변론이 있었다.

종근은 심사원이 어떤 각도에서 공격하겠는지 생각하면서 그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심사원도 그동안 소성리론을 좀 연구하였는지 태도가 달라졌다. 강좌변론때보다는 날카롭게 질문하고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각도에서 론문내용과 관련하여 의문되는 문제를 물어보았다.

종근의 졸업론문변론소식은 삽시에 온 학부에 퍼져 학생들의 화제거리로 되였다.

대학생이 졸업론문변론에서 자기를 배워준 교원과 론쟁을 벌린다는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였던것이다.

종근의 졸업론문은 대학에서 배워주는 범위를 벗어나 대담하게 과학의 최신성과에 기초하여 문제를 설정하고 과학적으로 론증한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종근은 졸업론문작성과정을 통하여 과학의 세계란 부단한 새것의 창조과정이며 과학기술의 새 성과에 민감하고 그것을 생산과 실천에 남먼저 도입하는 사람만이 권위자가 될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깨달았다.

심사원자격으로 종근의 졸업론문변론과 심사의 여러 단계에 다 참가하였던 어느한 선생은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피력했다.

《진보는 항상 새것의 탄생을 전제로 한다는것을 나는 정종근학생과의 론쟁에서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정종근은 론문의 주제도 엄청난것을 잡았지만 그 풀이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리론으로 전개하였다.

나는 정종근의 졸업론문에 조국을 과학과 기술로 떠받들려는 그의 애국의 포부가 비껴있다고 확신한다.》

종근의 애국의 포부는 졸업론문의 한계를 벗어나 들끓는 벅찬 현실에 용약 뛰여들어 한몸을 바쳐가는 보람찬 나날들에도 자욱자욱 비껴있었다.

졸업식을 앞둔 1967년 8월말이였다.

수백년래의 대홍수로 대동강이 범람하여 평양시의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전국의 대학생들을 평양시수해복구전투에로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아안은 대학생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달려오고 온 나라가 떨쳐나선 수해복구전투로 하여 평양시는 활화산처럼 끓어번졌다.

펄펄 날리는 붉은 기발들과 방송차의 격동적인 경제선동, 인산인해를 이룬 건설자들과 중기계들의 동음소리…

대도시는 불야경속에서 하나의 건설대전을 치르고있었다.

김책공업대학 선박공학부에서는 평양화력발전소의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여 만년제방으로 튼튼히 쌓을데 대한 무거운 과업을 수행하게 되였다.

방대한 량의 콩크리트치기작업을 해야 하였는데 그러자면 모래, 자갈보장이 선행되여야 했다.

선박공학부 졸업반학생들에게는 동평양쪽 대동강변에서 가설천막

을 치고 모래, 자갈을 채취할 과업이 떨어졌다.

돌격대가 조직되고 지휘관들이 임명되였다. 종근은 사관장의 임무를 맡게 되였다.

두터운 감탕판을 제거하고 모래, 자갈을 채취하여 100㎙밖의 거리까지 운반하여 쌓아놓는 작업은 힘겨웠다.

질통, 밀차, 목고 등 운반수단이 될수 있는것은 다 총동원되였다. 돌격대원들은 하루 서너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사기충천하여 일하였다.

종근은 전투원들의 후방사업과 작업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입술이 부르트도록 사방으로 뛰여다녔다.

그는 낮과 밤이 따로없이 철야전투를 벌리는 전투원들에게 푸짐한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였다.

종근은 이렇게 후방사업을 하면서도 돌격대의 작업정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렸다.

막대한 량의 모래, 자갈을 등짐이나 목고로 날라서는 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었다. 결정적인 대책은 기계화를 하는것이였다.

어느날 저녁 작업총화시간에 종근은 생각해오던바를 돌격대 대장에게 말하였다.

《지금처럼 뚝심이나 써서는 작업능률을 높일수 없습니다. 대담하게 벨트콘베아를 놓읍시다.》

대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나 인차 어두워지면서 근심스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벨트콘베아… 벨트콘베아를 놓으면 좋겠지만 그 기계를 어디에 가서 가져오겠소? 그림의 떡이지.》

종근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봐둔것이 있고 그곳 일군들과도 토론해보았습니다.》

다혈질인 대장의 얼굴이 다시금 환해졌다. 그는 책상을 치며 말했다.

《그렇소?! 사관장이 다르긴 다르구만. 이젠 살았소.》

가설천막이 떠나가게 모두가 환성을 지르며 저마다 떠들었다.

그날부터 제대군인출신 학생들을 선두로 전동기, 전선, 피대, 지지틀 등 크고작은 벨트콘베아부속들을 구해들이는 전투가 벌어졌다. 모두가 성수가 나서 일하였다.

3일이 지나 김책공업대학의 모래, 자갈채취장에는 웅장한 벨트콘베아가 틀지게 들어앉아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능률은 몇십배로 뛰여올랐다.

수해복구전투지휘부에서는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현장방송과 대문짝같은 속보판들에서 누구도 생각 못한 착상을 한 정종근의 소행에 대해 요란하게 소개하였다.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김책공업대학이 단연 1등을 하였다. 종근은 그후에도 여러가지 합리적인 안을 많이 내놓아 공사과제를 제기일안에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어느덧 1년이 흘렀다.

대학생들과 평양시민들의 애국적헌신성과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큰물피해는 말끔히 가셔지고 수만세대의 현대적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섰다.

공원과 유원지들이 새로 꾸려지고 아름답게 단장되였으며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되여 생산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기 시작하였다.

종근은 뜨거운 감회속에 몰라보게 변모된 수도의 거리를 밤깊도록 거닐었다.

창가마다들에서 비쳐나오는 불빛속에 애국의 크나큰 포부를 안고 자기의 온넋과 창조적지혜를 다 바쳐갈 번영하는 조국의 미래가 안겨왔다.

□ 뜻이 같은 길에 진정이 있다

어느해 정종근은 자기의 생일날에 찾아온 사람들앞에서 안해를 추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제 안해는 나의 분신이였습니다. 저는 한생 과학에 종사하면서 적지 않은 과학기술적성과를 내놓았지만 과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안해가 없이는 그 모든 성공이 불가능했습니다. 혈육을 멀리 이국에 둔 저로서는 안해가 가장 가까운 동지이고 어머니였습니다.

부부란 가위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나는 제 한생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서로 필요로 하고 의지한다는것의 참의미를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과학탐구의 길에 몸바칠수 있은데는 제 안해의 남모르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룡수 어머니를 일생의 반려자로 선택한것도 저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결단이였습니다.》

7년간의 대학생활을 마친 종근은 드디여 대학교정을 떠나게 되였다. 대학의 추천과 그의 희망대로 지방의 어느한 연구소에 배치받고 떠나게 된것이다.

아침일찍 일어나 대학에서의 마지막 아침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어디에 가든 우리 우정을 잊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자는 열띤 말들이 수없이 오갔다.

종근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흘러온 대학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무엇인지 알수 없는 허전한 마음이 가슴에 흘러들었다. 정말 잊을수 없는 대학시절이였다.

종근은 배치지로 가기 위해 보통강역으로 나갔다.

민혜와 그의 어머니가 보통강역전에 나와 바래주었다.

렬차가 떠나기에 앞서 종근은 민혜에게 내가 지방에 배치되다나

니 동무에게 고생을 시키게 되였다, 이것이 어쩐지 가슴에 걸린다고 말해주었다.

민혜는 왜 출발하는 날까지 그런 말을 하는가고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자기는 정동무가 가는데라면 어디라도 가겠다, 정동무가 큰 포부를 안고 전공분야에 가서 일하겠다는데 자기도 절대찬성이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티없이 밝게 웃는 민혜를 바라보는 종근에게는 그를 처음으로 만나던 때의 일들이 떠올랐다.

그가 민혜를 알게 된것은 대학졸업반때였다.

그가 졸업을 앞두고 바쁘게 지내던 어느날이였다.

일본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성동무가 찾아와 자기의 부모들이 종근이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한다는것이였다.

성동무는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서 공부하고있었다.

오래간만이라고 몹시 반가와하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성동무의 아버지는 문득 종근에게 인차 대학을 졸업하겠는데 봐둔 처녀가 있는가고 물었다.

종근은 어정쩡해하며 잘 모르겠다고 왕청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가 당황해하는 모양을 웃음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성동무의 아버지는 느닷없이 그를 옆현관에 있는 어느한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집에 들어가 인사를 나누던 종근은 깜짝 놀랐다. 그 집은 그가 도꾜조선중고급학교를 다닐 때 체육교원이였던 리동규의 집이였던 것이다.

리동규선생은 후날 조국에 귀국하여 체육학 교수, 박사로, 인기있는 축구해설원으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더우기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그의 재능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나라의 재사이라고 하신 값높은 평가의 말씀을 받아안았다.

동규선생의 안해 역시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체육교원이였으며 종근의 둘째형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종근과의 연고관계를 알게 된 리동규선생과 그의 가족들은 매우 놀라와하면서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던한 인상에 인

정미가 넘치는 그 집 어머니가 인자하게 웃으며 어찌된 일인지 기쁨을 감추지 못해하였다.

이때 의학대학에 다니는 리동규선생의 누이동생 리민혜가 간단한 간식을 받쳐들고 방에 들어와 가볍게 인사를 한 다음 나갔다.

종근은 분명히 손님인 자기에게 하는 인사이기에 엉거주춤 인사를 받았다.

처음 보지만 단정한 얼굴, 시원하고 정기도는 눈, 단아한 몸매, 얌전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처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종근은 왜서인지 별로 가슴이 설레였다.

민혜의 어머니는 종근을 살펴보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있었다. 그날 식사를 하고 한담을 하는데도 끼우지 않고 줄곧 말이 없던 어머니가 종근을 향해 말을 걸었다.

《올해 몇살인가?》

《25살입니다.》

《보아둔 처녀가 있나?》

인자하게 들려오는 어머니의 다심한 목소리가 가슴을 찌르르하게 울리였다. 일본에 계시는 친어머니가 아들의 신상이 념려되여 걱정하는것같이 생각되여 후더워지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채 대답하였다.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혜가 어떤가. 마음에 없나?》

너무나 급작스러운 말에 종근은 폭탄이라도 맞은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얼핏 스쳐본 처녀를 두고 마음에 없는가 물으니 당황하고 쑥스러워서 얼굴만 붉히고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종근이가 민혜의 집으로 오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그때 민혜의 나이는 23살이였다. 어머니는 딸의 혼사를 두고 은근히 마음을 쓰고있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사위감을 물색하고있던중 옆현관에 사는 성동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에 의하면 총각의 나이는 25살, 김책공업대학 선박공학부 졸업

반학생, 머리가 대단히 비상하고 성품이 어질고 성실하며 우애심이 두텁다는것, 처녀들이 줄을 서서 바라보고있다는것이였다.

민혜 어머니는 그날부터 아들내외를 부추기고 사람들을 내세워 미래의 사위감을 료해하여보았다.

말그대로 외모가 준수하고 머리가 좋으며 사람됨이 괜찮은 흔치 않은 신랑감이라는것이였다.

조급해난 민혜 어머니는 만사를 불문하고 성동무를 시켜 종근을 집에 불렀던것이다.

결 볼 안이라고 어머니는 종근이가 첫인상부터 마음에 흠뻑 들었다. 그래서 시원시원한 성미그대로 마음을 서슴없이 터놓은것이였다.

그런 일을 알리가 없는 종근은 한동안 깊이 생각하며 얼굴을 숙이고있다가 침착하게 말을 하였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호의를 받을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하면 평양에 남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연구소에 가야 합니다. 귀한 따님을 저에게 맡기시면 고생밖에… 그러니 따님을 평양에 있는 좋은 총각에게 시집보내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종근은 마음속진정을 숨김없이 그대로 토로하였다.

민혜의 집에서는 지방에 내려가는것도 좋지만 평양에서 알맞는 직업을 구하는것도 좋지 않는가고 넌지시 의향을 떠보았다.

허나 종근은 동요하지 않았다. 뒤시간쯤 있다가 성동무의 집으로 돌아왔다.

성동무의 아버지는 종근이가 한 대답을 듣고 무척 아쉬워하였다. 그 집 딸이 정말 얌전하고 머리가 좋다고 하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여유를 주었다.

그날부터 종근은 머리가 복잡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민혜는 첫 모습에서 어쩐지 벌써 눈길을 끌었다. 어찌나 강한 인상을 받았는지 좀처럼 잊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의학대학에 다니는 한 친구에게 민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민혜는 머리가 비상하고 녀성다우며 끌끌한

총각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면서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는것이였다.

종근은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특별히 나은데가 없는 자기를 무엇이 좋아서 선택했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민혜에게로 쏠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래서 종근은 그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내볼수록 지식수준이 높고 품성이 녀성다우며 인정과 리해심이 많아 마음에 들었다. 민혜도 그와 만나 이야기하는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종근은 하루라도 그를 만나지 못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수가 없었다.

하지만 종근은 민혜에게 정든 수도를 떠나 낯선 지방으로 가자고 강요할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여 사랑을 위하여 자기 포부를 버리고 평양에 떨어질수도 없었다.

괴롭더라도 락착을 보아야 할 일이 심연처럼 가로놓여있다는 생각에 무척 괴로웠다.

어느날 저녁이였다. 종근이와 민혜는 대동강가에 나란히 앉았다.

아름다운 수도의 불빛을 안고 대동강물결이 조용히 일렁이고있었다. 어디선가 물고기 뛰여오르는 소리가 고요속에 잠긴 밤의 정서를 더해주었다.

종근은 긴장감으로 목이 말라드는것을 느끼며 심중하게 말을 떼였다.

《민혜, 그간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깊은 파악을 했다고 봐. 어머니의 의향은 잘 알고있지만 우리 둘사이에는 반드시 락착지어야 할 계선이 있다는것을 동무도 잘 알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있던 민혜는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밝고 명랑한 얼굴로 정차게 바라보았다.

《서두가 지내 엄엄하지 않아요? 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일생문제인데 왜 그렇지 않겠소. 내가 바라는것은 우리 서로 진심만을 말하자는것이요.》

《알겠어요. 가식없이 진심만을 말하겠다는걸 약속해요.》

《동무도 아다싶이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그날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훌륭한 배들을 많이 만드는것이 내 인생의 포부이며 꿈이요. 문제는 동무가 나를 따라 어떻게 지방으로 가겠는가 하는것이요. 나는 그렇다치고 동무야 정든 어머니와 형제들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고생을 사서 하겠소. 지방에 가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결심했으면 하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동무를 조금도 탓하지 않겠소. 정말이요.》

민혜는 심중한 표정으로 조용히 뒤척이는 강물을 바라보고있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는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선언하듯 말하였다.

《나도 이 문제를 두고 생각을 많이 해보았어요. 어머니나 오빠, 형님하고도 의논해봤어요. 다들 나의 결심을 지지해요.

나는 종근동무가 훌륭한 사람이고 꼭 성공할것이라고 느껴져요. 세대주가 믿음직하고 많은 일을 할 사람이라면 녀자인 내가 곁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이란 생각하기탓이예요. 나는 지방에 가면 그곳 병원에서 일하면 돼요. 잘사는가 못사는가 하는것이 기본은 아니예요. 나는 종근동무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큰일을 할수만 있다면 지방이 아니라 이 땅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어요. 여기에서는 변심이 없을거예요.》

민혜는 괴로워하는 종근에게 힘을 주듯 정에 넘치는 따뜻한 눈길로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얼마나 믿음이 가고 사랑이 넘치는 벗이며 동지인가. 종근의 심장은 흥분과 기쁨으로 후덥게 달아올랐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그처럼 순결하며 아름답고 높은 지성의 세계가 가슴에 마쳐와 종근은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들은 대동강가를 떠나오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종근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려는듯 민혜가 주로 말하였다.

그는 만약 정동무가 자기 전공을 버리고 평양에 배치받겠다고 하였다면 나는 정동무를 선택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정동무가 평양에 선박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없으므로 지방에 있는 연구소에 가겠다고 하여 몹시 존경심이 갔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곳의 병원에서 얼마든지 일을 할수 있고 남편이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으면 자기는 그이상 바랄것이 없다고 진정을 터놓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길을 함께 가는것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다. 사랑은 생활의 외로움과 피로움을 가셔주고 난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원천이다. …

기적소리가 울렸다. 렬차가 떠날 시각이 온것이였다.

《자, 어서 오르라구.》

민혜의 어머니가 종근의 등을 떠밀었다. 민혜는 아무 말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있었다. 사랑하는 님의 보람차고도 간고한 과학탐구의 길을 그려보는지.

종근은 달리는 렬차안에서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티없이 하얀 종이에 쪼아박듯 이렇게 썼다.

《남녀의 진실한 사랑, 부부간의 진정! 그것은 인생의 뜻이 같고 생의 포부가 한결같은데 그 공고한 기초가 있고 근본바탕이 있다.》

두 청춘남녀사이에 오가는 순결한 사랑과 뜨거운 진정.

그것은 정종근이 걸어갈 과학탐구의 길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원대한 포부를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더없는 밑거름으로 되였다. 그 사랑, 그 진정이 꽃피운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들의 인생길에 자욱자욱 새겨지리라.

3. 조국과 인생의 영광

□ 행복한 사람은 애국의 길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이다

드디여 20대청년과학자의 삶이 시작되였다.

종근은 배치되여온 연구소가 자기의 리상과 포부를 실현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으로 여겨졌다. 연구소의 과학자력량이 그쯘하게 구성된것으로 하여 그들속에서 연구사업을 하면 저도 모르게 실력이 커질것이라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제기되는 선박설계와 선박제조의 많은 몫을 자기가 속한 연구소와 린접조선소가 해제끼고있는것으로 하여 초학도인 자기에게도 많은 일감이 차례질것이라고 생각되였다.

종근의 뇌리에 일감이라는 말의 뜻이 새롭게 새겨지게 된것은 졸업후 스승을 찾아갔을 때였다.

연구소에 내려가기에 앞서 작별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종근을 김동신교수는 반갑게 맞이하였다. 몇해를 두고 품을 들여 키운 제자를 조국앞에 내세우게 된 교수의 심정은 기쁘기도 하고 감회도 깊었다.

동신교수는 무엇인가 뜻깊은 이야기를 해주고싶었다. 어려운 과학탐구의 길을 걸어야 할 제자에게 많은 시간을 바쳐 자기가 한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생활의 진리를 넘겨주고싶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너무도 짧았다.

《한시도 두뇌를 놀리지 말게. 일감이 사람이요. 한가한 생활은 순결할수 없소.》

사회생활의 첫 문어구에 들어선 새파란 종근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되새겨보며 음미해보아야 할 교훈적인 말이였다.

연구소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내용을 이야기해주면서 종근동무는 무엇에 대한 연구를 하고싶은가고 물었다.

선박구조력학계통의 연구사업을 하고싶다는 종근의 대답에 소장

은 이렇게 말했다.

《구조력학계통에 대한 연구가 희망이면 선박리론연구실에 가서 일합시다. 선박리론연구실은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꾸려져있습니다.》

소장은 종근을 데리고 선박리론연구실로 가서는 실장과 연구사들에게 이 동무가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김동신교수의 추천으로 우리 연구소에 배치되였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직접 핵심연구사들을 소개해주었는데 말그대로 실력가들이였다.

선박리론분야와 선박설계분야, 선박구조력학분야와 선박건조공학분야에서 권위있는 사람들, 그들의 책상우에 놓여있는 여러 나라들의 참고서와 잡지들을 보니 종근은 큰 위압감을 느끼였다. 그는 당황해하며 대학기간에 별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많이 가르쳐달라고 진정이 어린 인사를 하였다.

리론연구실의 연구사들은 저명한 동신교수선생의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온 애젊은 대학졸업생을 따뜻한 정과 은근한 호기심을 가지고 맞이하였다.

입직한지 얼마 안있어 종근은 동해안에 현대적으로 건설되는 조선소의 설계집단에 망라되여 현지에 파견되게 되였다. 대체로 오랜 경험과 독특한 탐구능력이 있는 실력있는 과학자들이 망라되는 국가적인 사업에 갓 대학을 졸업한 연구사가 망라되기는 연구소가 생긴이래 처음이였다. 그래서인지 연구소전체가 놀라움과 선망이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종근은 선박기사로서 조선소설계는 생소한 분야였지만 선박공업의 중요한 부문을 파악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것을 진지하게 파고들어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썼다.

그는 조선소설계조에서 일하는 과정에 현대적인 조선소의 내부구조와 기본생산흐름선, 흐름선에 따르는 건물들의 배치, 중요설비배치방안 등을 깊이 료해하고 조선소건설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6개월이 지난 후 설계조의 사업이 끝났다.

달리는 렬차의 차창밖으로 동해의 푸른 물결우에 날아예는 갈매기들을 바라보며 종근은 이번에 얻은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지식에 대하여 만족한 기분으로 하나하나 되새겨보았다. 그러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깊이 파악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과학연구사업을 해야 할 절박한 책임감에 대하여 깊이 자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날 연구소에 있는 대형수조결을 지나던 종근은 하나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였다.

수많은 연구사들이 몰켜서서 물면우로 날아가는 고속배의 사진을 찍느라고 붐비고있었다. 그런데 매번 허탕만 치고있었다.

건물안에서 그것도 빠른 속도로 물우를 미끄러져 날아가는 배의 사진을 찍는것은 배의 저항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래야 배의 속도를 계산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튀여나오는 물방울과 배를 적시는 물모양을 육감으로써는 도저히 알수 없었다. 사진으로 고착시켜야 그것을 정확히 볼수 있겠는데 이것이 좀처럼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연구소적으로 애를 먹고있었던것이다.

종근은 아무 생각없이 난감해있는 연구사들에게 자기가 한번 찍어보겠다고 한마디 하였다.

사람들의 놀라운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였다.

《정동무, 정말이요? 이것만 사진찍으면 정말 대단한데…》

나이지숙한 한 연구사가 심중한 안색으로 말하였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거요. 우리는 이 사진찍는 문제를 놓고 벌써 몇번째 애를 먹고있소. 숱한 전문사진사들까지 초빙해왔지만 다 실패하고말았소.》

당시로서는 자동사진기가 없었으므로 수동사진기를 사용하였으니 매우 힘들었던것이다.

그제서야 종근은 그 일이 쉽지 않음을 직감하였다.

정종근은 그날 퇴근하지 않고 연구실에서 밤새 연구하였다. 홀로 앉아 전문사진사들도 못해낸 실패의 원인을 곰곰히 따져보며 사색에 사색을 거듭했다. 3시를 가리키는 시계종소리가 울릴무렵이였다.

무엇인가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아, 이것이다. 여기에 원인이 있었구나.)

종근은 기뻐서 책상을 쳤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고정된 사진기로 찍으려고 했으니 실패할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그는 광도가 제일 큰 필림을 구해가지고 촬영에 나섰다. 사진기 여닫개를 최대한 열었다. 그리고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우에 사진기를 태운 다음 배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배를 따라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었다.

완전성공이였다.

현상한 사진에는 물방울과 물이 선체를 적신 부분, 비물로 뿌려지는 물결부분이 생동하고 완벽하게 찍혀져있었다.

연구소에서 오래동안 고심하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배의 저항이 계산되고 배의 속도를 높일수 있는 열쇠를 찾게 되였다.

그처럼 고심했어도 해결하지 못하던 난문제를 연구소에 갓 배치된 젊은 대학졸업생이 단 하루만에 성공했으니 온 연구소가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 온 연구사가 정말 재간둥이라고, 연구소에 보배덩이가 굴러들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종근이 연구소에 배치된지 1년이 지난 때였다.

연구소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 000t급선미뜨랄선을 설계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이 제시되였다.

당시 어로작업에서 선미뜨랄선을 도입하는것은 세계적추세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300～400t급현측뜨랄선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1 000t급이나 되는 그런 큰 선미뜨랄선은 거의나 없었다. 선미뜨랄은 현측뜨랄에 비하여 더없이 현대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어로방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구상하신 선미뜨랄선설계과제를 받아안게 된 연구소일군들과 연구사들은 그처럼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즉시에 선미뜨랄선설계를 위한 강력한 설계조가 조직되였는데 종

근도 여기에 망라되였다.

연구소 소장이 주관한 모임에서 설계조 총책임자와 함께 기본설계, 구조설계, 전기설계, 어로설계, 설비설계, 동력장치설계 등 각 분야별로 담당자가 임명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종근은 설계조에서 가장 중요한 선미뜨랄선기본설계를 맡게 되였다.

원래 기본설계는 실력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대상책임자가 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있었다. 기본설계는 선박설계에서 기본핵심이며 기본설계담당자는 설계조안에서 참모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설계자는 배의 크기와 속도, 성능,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 타산하여야 한다.

기관은 몇HP짜리 기관을 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구획에 놓아야 하는가, 보조기관은 몇HP짜리로 정하며 어떤 설비들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를 지적해주어야 한다. 또한 어로설비, 항해설비, 생활실배치와 크기, 난방에 이르기까지 선박의 구체적부분에 대한 방향을 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기본설계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 000t급선미뜨랄선에 대하여 완전히 파악하고 배의 모든 구조, 성능이 머리속에 환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의 복원성, 조종성, 파도속에서의 안정성, 어로작업에서의 안정성과 요구되는 속도까지 다 타산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설계자가 작성한 총배치안에 따라 부분설계자들이 구체적으로 부분설계를 완성하게 되여있었다.

종근은 기본설계라는 이처럼 엄청나게 무거운 과제가 자기에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놀라움에 앞서 두려움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선미뜨랄선기본설계를 대학을 갓 졸업한 내가 어떻게 맡을수 있겠는가. 연구소에는 년한이 오랜 실력가들이 많은데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리해가 되지 않아 종근은 총책임자를 만나 의견을 제기하였다.

얼굴이 상기되여 말마저 더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총책임자

는 《왜 두렵소?》 하고 물었다.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무섭습니다.》

설계조 총책임자는 큰소리로 웃다가 정색하여 말하였다.

《종근동무에게 기본설계를 맡기는 문제를 가지고 심중한 론의가 있었소. 우리는 동무에게 아직 경험은 없지만 그 누구보다 기발한 착상과 진지한 탐구심, 불타는 정열이 있다고 보았소. 그래서 대담하게 큰일을 맡기기로 한것이요. 적극 밀어주겠으니 한번 해보기요. 청춘의 패기와 풍부한 지식은 두었다 무엇에 쓰겠소. 우리는 정동무가 꼭 해내리라고 믿고있소.》

사실 연구소에서는 종근이 연구소에 나타난 그때부터 그에게서 재능의 싹을 발견하였다. 귀중한 그 싹을 잘 틔워주면 새로 만드는 1 000t급선미뜨랄선기본설계도 훌륭히 해내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던것이다.

연구소 소장과 설계조 총책임자의 진지한 설복과 권고를 새겨들은 종근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였다.

그는 우선 외국어로 된 600페지짜리 두터운 선박설계참고도서를 한달동안에 번역하여 책의 내용을 통달하였다. 누군가가 그 책에 정통해야 배를 설계할수 있다고 일깨워준것이다.

도서의 번역과정을 통하여 종근은 선미뜨랄선설계에 대하여 더욱 깊이 파악하게 되였으며 어느 정도 신심도 생겼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관심하시는 중요한 선박설계를 높은 수준에서 해놓아 기어이 기쁨을 드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스스로 다지였다.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자료조사에 착수하였다. 연구소 도서관에 있는 선미뜨랄선과 관련한 외국어로 된 잡지, 도서, 참고서들을 집중적으로 보며 필요한 자료작업을 하였다. 종근은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바쳐가며 문헌조사를 하였다. 평양의 중앙도서관에 가서 보름나마 자료연구도 하였다.

종근은 문헌을 통하여 선미뜨랄선에 대하여 일정한 개념이 서게 되였으나 파고들수록 선미뜨랄선기본설계가 간단치 않은 과제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배는 바다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산 및 생활기지이다. 배에는 지상의 모든것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그에 맞게 배의 제한된 공간에 필요한 설비들을 배치하고 어로작업과 생활조건을 최대한 보장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배의 기본설계를 잘하자면 배에 설치하게 되는 기계설비의 크기와 형태, 작업특성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도면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사실상 이처럼 복잡한 설계를 맡을 사람은 연구소적으로도 많지 않았다.

침식을 잊고 사색하고 착상하며 계산을 하는 나날속에 날과 달이 흘렀다.

온 연구소가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맡은 젊은 연구사의 작업과정을 주시하고있었다.

총책임자가 너그러운 눈길로 종근의 마음속고충을 읽으며 무슨 잡지를 보아라, 어떤 계산을 해보라는 식으로 조언을 주었으며 어디까지나 그가 독자적으로 사고하며 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조용히 떠밀어주었다. 종근은 시련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설계에 박차를 가하였다.

드디여 고심어린 노력끝에 총배치안을 작성하여 내놓았다.

배치안을 놓고 연구소과학평의회가 열렸다. 과학평의회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총책임자의 지도밑에 종근은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배치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배치안이 완성되였을 때 자기 일처럼 제일 기뻐한 사람들은 소장과 설계조 총책임자였다.

소장은 결코 자기가 종근의 재능을 헛보지 않았다는 생각, 앞으로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할수 있는 젊은 인재를 발견하였다는 확신으로 만족감을 금치 못하였다.

선박설계에서는 기본설계를 맡은 사람이 총배치안을 작성하며 부분설계가들은 총배치안에 의거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때문에 기본설계를 맡은 종근이 부분설계가들에게 지시를 주고 부분설계가들은 그

의 요구에 복종해야 하였다.

종근의 나이에 비해볼 때 부분설계가들은 나이가 훨씬 우인 선배들이였다.

그러나 설계가들은 그의 지시에 복종하고 서로 협력하며 설계를 완성시키는데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갔다.

종근도 년장자들인 그들을 존중하고 례절있게 대하였으며 그들의 조언과 의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설계를 완성시켜나갔다. 한편 그들과 인간적으로 더욱 친숙해지고 그들이 생활에서 어려워하는 문제들도 성의껏 풀어주었다. 어로설비, 난방설비, 거주설비 등 부분설계가들과의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종근은 일을 전개하는 과정에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것만큼 사람과의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것 특히 기본설계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분설계를 맡은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가까워야 모든 문제를 쉽게 그리고 책임성있게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종근은 각이한 정황과 어려운 조건을 설정해놓고 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산을 몇백번이나 하였다. 그리고 뜨랄선이 고기를 잡고 뜨랄작업을 할 때 속도를 보장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심중한 주목을 돌렸다.

종근은 모형배를 만들고 거기에 뜨랄작업할 때와 같은 그물과 물고기무게만한 물건을 넣은 다음 대형수조에서 저항시험을 해보았다. 결과 모든 예측과 계산이 맞는다는것이 증명되였다.

이 과정에 종근은 배설계란 얼마나 힘들고 심중한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절감하였으며 참으로 많은것을 실지체험을 통하여 배웠다. 이제는 어떤 배도 설계할수 있다는 자신심도 생기게 되였다.

최종적으로 배의 설계가 완성되자 조선소에서는 배무이전투가 힘차게 벌어졌다. 종근이 처음으로 설계한 도면에 따라 거대한 배가 건조되기 시작한것이다.

후날 정종근은 《환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설계가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어렵고 복잡한 과정으로서 조국에서의 첫 선미뜨랄

선에 대한 설계과정과 제조과정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드디여 우리 조국에서의 첫 선미뜨랄선이 건조되고 진수식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진수식날 조선소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손에손에 기발과 꽃다발을 들고나와 《만세!》를 부르며 새 선박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들인 설계가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 중심에는 종근이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선미뜨랄선을 건조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어선의 이름을 《대덕산》호라고 친히 달아주시였다.

1 000t급선미뜨랄선 《대덕산》호의 건조는 우리 나라 수산업과 선박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뚜ㅡ》

람홍색공화국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어선이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였다. 자기를 공부시켜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보답의 첫 창조물을 보는 종근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였다.

그 눈물너머로 김동신교수의 모습이 떠오르며 졸업후 헤여질 때 그가 하던 말이 쟁쟁히 들려왔다.

(두뇌를 놀리지 말라. 일감이 사람이다. 한가한 생활은 순결할수 없다. 선생님은 참 뜻이 깊은 말을 나에게 해주셨구나.)

상념에 빠져있는 종근이에게 누군가가 평양에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알려주었다. 조선소의 한 사무실로 급히 달려가 전화를 든 종근은 어쩔바를 몰라했다. 평양에서 동신교수가 걸어온 전화였다.

《예, 접니다. 종근입니다. 이자 방금 진수식이…》

종근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책감에 휩싸였다. 졸업후 여직껏 소식 한장 전하지 못한 자기가 민망스러웠다.

《종근이! 내 다 알고있네. 지금껏 많은 일감을 말아안고 해제꼈다는걸.

힘들었어도 보람있고 행복했지. 행복한 사람은 애국의 길에서 보

람을 찾는 사람이요.》

동신교수는 일이 바쁠 종근을 생각했는지 인차 전화를 끊었다. 했어도 종근의 뇌리에서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큰 진폭을 가지고 계속 울리였다.

행복한 사람은 애국의 길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이다!

종근은 이 말을 뇌이면서 조국을 받드는 과학자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였다.

□ 삶의 환희란 어떤것인가

인간은 어느때 환희에 넘치는가. 부강조국을 위한 길에 한몸 다 바쳐나가는 과학자에게 있어서 삶의 환희란 어떤것인가.

선미뜨랄선의 기본설계를 맡아한것은 새세대 젊은 연구사인 종근의 남다른 재능이 과시된 기회로 되였다. 그때로부터 선박설계연구소에 중요한 설계과제가 제기될 때면 의례히 그가 설계조에 망라되군 하였다.

어느해 여름 연구소에서는 고속경기정을 설계제작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종근에게 주었다. 고속경기정 역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는것이였다.

새 연구과제를 맡게 된 종근의 가슴은 불타는 열정으로 또다시 달아올랐다.

문헌조사를 충분히 한 기초우에서 그는 보름동안에 고속경기정에 대한 설계를 끝내였다. 온 연구소가 놀라와하였다. 혼자서 하는 설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고속배에 대한 설계이기때문에 작아서 6개월은 걸릴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처럼 짧은 기간에 해제꼈으니 놀라움과 함께 감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나오는것은 응당한것이였다.

심의에서는 단 한점의 결함도 없는 만점짜리 설계로 평가되였다. 설계에 따라 곧 고속경기정제작에 들어갔다.

종근은 언제나와 같이 제작현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제작자들과 함께 배제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성공에로 이끌어가는 젊은 과학자를 보며 사람들은 믿어의심치 않았다. 고속경기정이 꼭 단숨에 출현할것이라고.

드디여 그날이 왔다. 고속경기정은 마치도 물우에 두둥실 떠있는 아름다운 백조처럼 우아하고 경쾌하였다.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대동강반에 하얗게 모여온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운전이 시작되였다.

해양구락부의 전문선수가 운전하는 경기정은 빠른 속도로 물우를 날아갔다.

종근은 혹시 배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물속에 박혀들어가지 않을가 하는 조마조마한 생각으로 손에 땀을 쥐고 서있었다.

배가 물면에 닿을 때마다 《탕, 탕》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지만 고속경기정은 계속 앞으로 힘차게 미끄러져갔다. 성공이였다.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끝나자 사람들이 모여와 배를 설계한 그를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미더운 눈길들이 그의 얼굴로 쉬임없이 날아왔다. 그 눈빛들에서 종근은 더없는 행복감을 느끼였다.

아, 사람들의 믿음, 집단의 사랑! 여기에 나의 삶이 있는것인가. 과학자의 삶의 환희는 여기서 시작되는것인가.

종근은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들어가본지도 몇달이 되였거니와 오늘은 웬 일인지 성공의 기쁨을 정다운 안해와 함께 나누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집이 가까와지자 어인 일인지 그는 걸음을 멈추고 둔덕의 풀판에 앉아버렸다. 그리고는 끝간데 없이 펼쳐진 푸르청청한 창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창공속에 안해의 얼굴이 떠오르며 종근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평양에서 자란 민혜는 지방이 생소한 고장이고 부족한것이 적지 않았으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갔다.

종근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작업복을 입은채로 늦게 돌아오군 했어도 내색하지 않고 밤새워 빨아 말리워 언제나 깨끗한 차림새로

다니게 하였다. 구멍탄도 자기가 빚고 톱질, 망치질도 자기절로 하였다. 남편은 연구사업에만 전념하게 하고 일체 가정살림에는 신경쓰지 않게 하였다.

사실 동네아주머니들은 은근히 민혜를 주시해보고있었다. 지금까지 별로 고생하지 않고 수도에서 고스란히 살아온 녀자, 그것도 펜대를 쥐고 공부만 해온 그가 낯설은 이곳에 와서 어떻게 남편을 공대하며 살아가겠는가, 이것이 그들모두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처음부터 잡도리가 달랐다. 서슴없이 석탄을 주물고 망치질을 하며 때때로 한아름씩 빨래감을 가지고 나와 수도에서 빨래하는 그를 보면서 동네아주머니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참 훌륭한 녀성이라고 칭찬하였다.

알뜰한 안해의 덕에 종근은 집살림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인지 집에 무엇이 있고없는지조차 몰랐다.

집에 당도한 종근이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방안에 들어서니 안해가 어떤 애기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

그는 너무도 기가 막혀 《아니, 이렇게 더운 날에 이불을 쓰고 누워있소? 뭔가 잘못되지 않았소?》 하며 놀라와했다.

안해는 어이가 없는지 그저 웃기만 하였다.

《그런데 그애는 누구요?》

무엇인지 이상하여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중얼거렸다.

이때 앞집에 사는 할머니가 들어왔다. 할머니는 덜퉁하기 그지없는 젊은 세대주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무슨 세대주가 안해가 해산한줄도 모르나. 기뻐하게. 처녀애야, 금딸…》

순간 그 무엇인가가 종근의 뇌리를 꽝 내리치듯하며 정신이 버쩍 들게 하였다.

(아, 내 꼴이 이게 뭔가. 아무리 일이 바쁘다한들 안해의 해산에까지 무관심할수 있단 말인가.)

종근은 놀랍기도 하고 면구스럽기도 하여 눈길을 제대로 건사할수 없었다. 그러다가 불시에 끝없는 행복감과 기쁨이 밀려들어 누워

있는 처와 애기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여보, 수고했소. 제 집사람이 해산하는것도 모르다니, 난 정말…》

종근은 기쁨에 붕 떠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는 애기를 신기한듯 들여다보며 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뭔가 속삭이기도 하고 처에게 무엇이 먹고싶은가 물으며 서성거리기만 하였다.

그러면서도 싱글벙글 웃고있었다.

그것은 행복한 사람만이 지을수 있는 웃음과 랑만이였다. 아름다운 생활이 주는 삶의 희열, 삶의 환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성대하게 경축한 후 며칠이 지난 어느날 연구소의 당비서가 종근을 불렀다.

《정동무! 동무가 최근년간에 설계한 배가 몇척이요?》

영문을 알수 없는 종근은 눈을 껌뻑이다가 말하였다.

《선미뜨랄선과 그밖에…》

당비서는 만족해하는 사람이 흔히 그러하듯이 의자에 몸을 젖히며 그를 웃음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렇지, 그것들은 당시 우리 나라에는 없는 배들이였지. 참 수고가 많았소. 당에 대한 충성심이란 무엇이겠소. 높은 실력을 가지고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많이 내놓는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말이요. 그… 이제는 입당청원을 할 때가 되지 않았소?》

순간 종근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입당청원이라니?!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절절하게 소원하고있는 성스러운 조선로동당 입당을 자기가 할수 있다는것이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그는 격정으로 온몸이 불타올라 말을 떠듬거렸다.

《비서동지! 정말 뜻밖입니다. 저야 이제 겨우 대학을 졸업한지 4년도 안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오래 일한 선배들이 많은데 어떻게…》

사실 연구소에는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기를 열렬히 희망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가 속한 실의 연구사들만 봐도 그러했다.

종근은 어머니의 한없이 따뜻한 손길을 느끼였다. 그처럼 바라면서도 아직은 먼먼 장래의 일로 여겨오며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던 마음속소원을 어머니당은 속속들이 헤아려주는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려깊은 손길, 자애로운 품이 늘 자기를 키워주고 보살피고 이끌어주고있다고 생각하니 종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기쁨에 눈굽이 젖어들었다.

그로부터 한달후 종근은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였다. 그는 흥분과 감격과 환희로 가슴이 벅차올라 온 세상에 대고 당원이 되였다고 큰소리로 웨치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날 밤 잠들수 없었던 종근은 붉은 당원증을 펼쳐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설음많던 일본땅에서 살던 저에게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고 대학공부까지 시켜 중요한 선박연구기관에서 마음껏 과학탐구를 하도록 해주신 그 고마움을 정녕 잊을수 없는데 오늘 저는 또다시 분에 넘치게도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아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전사로서 과학과 기술로 영원히 당의 위업을 받들겠습니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 저의 모든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격정에 사무친 종근은 자기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며 창문을 열어제꼈다.

가없는 바다를 물들이며 붉은 노을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오늘 이 세상에 새롭게 태여난것같은 환희에 휩싸였다.

삶의 환희, 인생의 환희란 바로 이런것인가!

□ 서해갑문이 낳은 첫 영웅

조국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라!

조국을 위하여 온넋을 바치라!

고심참담한 과학탐구의 나날에 정종근의 뇌리에서는 언제나 심장을 달구어주는 이 말이 항용 떠나지 않고 그의 정열과 의지에 불이 되여주고 버팀목이 되여주었다.

1981년 봄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였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최대의 서해갑문건설구상을 펼치신것이였다.

서해갑문은 수심이 수십m나 되는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아 넓은 자동차길과 철길을 내고 수만t급의 선박들이 거침없이 드나드는 여러개의 현대적인 갑실과 무넘이언제를 비롯한 수많은 구조물을 가진 세계갑문력사상 류례가 없는 최대규모의 갑문이였다.

바로 이 서해갑문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대상이 가물막이공사였다.

사나운 날바다에서는 바위돌을 한차량 쏟아부어도 여울목에 한줌의 흙을 뿌린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게다가 빠른 물흐름과 조수가 있는 조건에서 가물막이공사를 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상상도 할수 없는 어려운 일이였다.

때문에 가물막이공사는 서해갑문건설공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물막이공사를 종전의 방법대로 할것이 아니라 철판으로 배를 무어 바다밑에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할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면서 가물막이공사를 2년동안에 끝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따뜻한 봄빛이 무르녹던 그해 5월 어느날이였다.

여느때와 같이 상쾌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일찌기 출근하여 일을 하고있었던 종근은 자기 방으로 오라는 연구소책임일군의 전화를 받았다.

그가 방에 들어서니 일군은 한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이 동무가 정종근동무입니다. 정동무, 인사를 하오. 중앙에서 내려온분이요.》

큰 몸집에 인상이 좋은 그 일군은 반색을 하며 종근을 옆자리에 앉히면서 말했다.

《동무가 유명한 정종근동무구만. 반갑소.》

그는 지금 몇살인가, 가족은 몇인가, 앓지는 않는가, 어떤 연구사업을 맡고있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열어놓은 창가로 날아들며 방안에 그윽한 정향꽃향기를 한가득 풍겨주었다.

이윽하여 그는 종근을 만나려는 취지를 밝히였다.

《정동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해갑문을 건설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는것을 알고있지요?》

《예, 알고있습니다.》

무엇인가 짐작되는것이 있어서 종근의 마음은 긴장해졌다. 그에 못지 않게 일군의 얼굴에도 신중한 기색이 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물막이공사는 서해갑문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공사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가물막이공사의 시공방법과 철배건조대책까지 다 밝혀주시였습니다.》

무게있게 말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종근은 과학자로서 어버이수령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비상한 통찰력에 대하여 다시금 뜨겁게 느끼였다.

20리 날바다를 막아 서해갑문을 건설하는것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웅대한 구상이며 대용단이였다.

여기에는 수도 평양을 다시는 홍수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년대계로

보호하며 은률과 남포를 련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고 대인공호수를 형성하여 대동강하류류역에 필요한 관개용수와 공업용수를 해결하며 대동강에서의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을 풍치아름다운 고장으로 꾸리실 수령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일군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이제는 우리 과학자들이 나서서 가물막이철배의 설계, 건조, 진수 등 실천상의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심중한 토의끝에 정종근동무에게 이 책임적인 사업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낼수 있겠습니까?》

종근은 이것이 자신에 대한 당의 믿음, 조국의 기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이라는것을 뜨겁게 느끼였다.

《해보겠습니다. 아니 꼭 해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하지만 상상밖의 너무나 아름찬 과업이여서 온몸이 굳어졌다.

그가 서해갑문건설공사의 핵심인 가물막이공사를 맡았다는 소문이 연구소안에 쫙 퍼졌다.

그날 밤 종근은 그처럼 중요한 과업을 받아안고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정말로 내가 해낼수 있겠는가? 아니, 조국의 품, 수령님의 품속에서 과학자로 자라난 내가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은정에 보답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그가 결심품고 나서기는 하였으나 가물막이연구과제는 생각보다 더 엄청나고 모든것을 새로 개척해야 하는 그야말로 복잡한 과제였다.

그는 가물막이공사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여보았다.

가물막이를 할 장소는 서해바다의 섬인 피도와 황해남도 은률군 끝살뿌리를 련결하는 구간에 있었다. 이 구간은 곬으로서 간조, 만조의 높이차가 컸다.

가물막이를 끝내고 바다물을 말끔히 퍼내면 안팎의 수위차가 수십m가 된다. 이때 밖으로부터 커다란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런 막대한

힘에 견딜수 있게 철배로 언제를 형성해야 하는것이다.

만약 거대한 수압에 견디지 못하여 물이 새거나 언제를 이룬 철배가 넘어지는 경우 그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건설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수 있다.

생각만 해도 엄청난 대공사였다.

이처럼 방대하고 어려운 가물막이공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정종근이 맡아 해제끼면서 겪은 하많은 일들을 일일이 다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다만 가물막이철배의 설계와 제작, 그 진수에 바쳐진 그의 불굴의 과학적신념만을 아래에 전하려 한다.

정종근이 착안한 설계안을 놓고 심의회가 열렸다. 전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국가적으로 권위있는 과학자, 전문가들뿐 아니라 서해갑문건설지휘부의 인민군장령들이 회의장에 먼저 나와있었다. 전국가적관심사로 되고있는 가물막이공사를 빨리 추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이 이 회의결과에 달려있기때문이였다.

하기에 심의회에 참가한 모두의 얼굴이 한껏 긴장되여있었다.

사회를 맡은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가물막이공사는 서해갑문건설의 운명적인 문제이며 2년내에 끝내야 할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과제라고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정종근연구사가 고심끝에 내놓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젊은 정종근이 무대에 올라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였다.

종근은 얼마나 긴장되였는지 다리가 다 떨리였다.

그는 청중을 둘러보며 확신에 넘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첫째, 기일을 보장하자면 지금 있는 선대(배무이대)에서 가물막이철배를 건조하여야 한다. 그에 맞게 가물막이철배의 너비를 적절하게 정하여야 한다.

둘째, 기름진수설비를 강구진수설비로 바꾸어야 한다. 기름진수방법으로는 철배의 진수가 불가능하다.

셋째, 한 선대에서 2척씩 건조하게 하여 결국 두개의 선대에서 동시에 4척의 가물막이철배를 건조해야 한다.

종근은 그러면서 이상의 방안대로 해야 2년이내에 가물막이공사를 완성할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청중의 여기저기서 반대의견이 제기되였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였다. 과학리론적인 론쟁이 너무도 첨예했던것이다.

사회자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공지휘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한 장령이 일어나 선대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 이미 있는 선대에서 철배를 건조할수 있다면 이것은 큰 혁신적인 방안이다, 가물막이철배가 외압이나 태풍같은 힘에 의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가물막이공사에서 돌파구를 여는 아주 중요한 착상으로 본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자도 서해갑문건설지휘부에서 선대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제기하고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있는 선대에서 건조할수 있으면 이것은 대단한 혁신이라고 하면서 더 깊이 연구할데 대하여 부언하였다.

종근은 다음으로 기름진수설비를 강구진수설비로 바꾸어 가물막이철배를 진수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기름진수에 비한 강구진수의 경제적실리와 방법의 우월성, 과학적계산에 대하여 렬거한 다음 진수할 때 속도가 커지는것과 관련하여 모래를 가지고 제동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모래식제동장치의 구조원리와 작업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종근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청중에서 여러가지 질문들이 튀여나왔다.

진수할 때 사람이 배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가, 그런 모래제동장치가 다른 나라에서 도입되였거나 문헌자료들에서 본것이 있는가, 철배를 모래로 제동한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꿈같은 소리이고 환상소설에서나 할 이야기가 아닌가. …

랭혹하다고 할만치 무자비한 여러 사람들의 발언에 종근의 가슴

은 예리한 그 무엇에 찔리운것처럼 아프고 쓰리였다. 그는 모든 의견들에 참작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후 종근은 더욱 분발하여 자기의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과학적인 계산을 다시한번 심화시켰다. 실험실에서 현실과 근사한 조건을 조성하고 배건조와 진수에 대한 실험도 수차례 하였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많은 연구사들, 서해갑문건설에 동원된 적지 않은 군관, 장령들이 종근의 연구사업을 발벗고 도와나섰다. 종근의 연구사업에 대한 내각과 련관된 중앙기관 일군들의 관심도 각별하였다.

숱한 간부들이 자주 찾아와 사업실태를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그에게 일을 잘하라고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었다.

두번째로 되는 심의회가 열흘후에 다시 열리였다. 공사장과 련관부문의 초점이 모두 심의회에 쏠려있었다.

종근은 이제는 모형실험에서도 성공했고 계산상으로도 잘 준비되여있었으므로 심의자들을 충분히 납득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론리적이며 현실적인 열변에 참가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가 제기한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긍정하였다. 연구사가 빈틈없는 계산수치를 내놓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시공은 우리가 담보할수 있다고 말하는 장령들도 있었다. 시공자까지 담보하겠다는 조건에서 종근의 방안을 가지고 더이상 토의할 필요가 없어졌다.

1982년 1월 24일 드디여 가물막이철배 1호선의 진수식날이 왔다.

검푸른 서해물결이 출렁이는 선대끝에 가물막이철배가 거연히 서있었다.

조선소 전체 종업원들이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나와 꽃바다를 이루었고 TV중계차와 수많은 기자들도 와있었다. 국가의 여러 책임일군들 그리고 선박공업부장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진수식장에 나왔다.

얼굴에 근엄한 빛을 띤 조선소 지배인이 대공전화기를 들고 가물막이철배의 방목을 해체하라고 지시하였다.

방목을 해체하면 가물막이철배는 모래제동장치에 의하여 제동되게

되는데 방목을 해체하는 이 순간이 제일 긴장된 순간이였다.

방목을 해체하자 가물막이철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수㎜정도 움직이다가 모래제동장치에 의하여 안전하게 제동되였다. 제동장치가 자기 성능을 발휘한것이다.

종근은 모래제동장치가 성공했다는 기쁨으로 눈물까지 나왔다.

옆에 있던 조선소 기사장도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였다.

다음순간 종근은 배밑으로 뛰여들어갔다. 진수할 때에는 누구도 배밑에 들어갈수 없었지만 그는 배밑 좁은 공간에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 제동장치의 동작과정을 주시하였다. 머리우로 미끄러지는 육중한 배를 따라 한치한치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죽음을 각오한 화선용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5초, 10초, 20초… 그 몇분동안에 마치도 한생이 흘러가는듯했다.

얼마나 긴장하였던지 1월의 강추위속에서도 등골에서 땀이 물흐르듯하였다. 육중한 배를 임의의 위치에 제동시킬수 있다는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마음을 놓았다.

서서히 움직이는 배를 진수시킬 자리에 옮겨놓은 후 만조시간까지 잠시 기다렸다. 최대만조시간이 되면 대동강물의 흐름이 몇분동안 정지되는데 이 순간에 배를 진수시켜야 하는것이다.

초조히 시계를 들여다보며 최대만조시간을 기다리던 지배인이 마침내 진수구령을 내렸다.

거대한 철배는 선대를 따라 미끄러지며 장쾌하게 진수되였다. 대성공이였다.

순간 장쾌한 진수장면을 보던 격양된 군중들속에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수천개의 고무풍선이 하늘가에 날아올랐다. 취주악이 울리고 촬영기와 사진기를 멘 기자들이 력사적인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방으로 뛰여다녔다.

종근은 환희에 넘쳐있었다. 오늘의 이 기쁨을 무엇이라 형언할수 없었다.

(아,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내 그대의 부강번영을 위해 불굴하고 또 불굴하리라. 그대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

치리라.)

감격에 목메여 흐르는 눈물속에 문득 어렸을 때 읊던 리수복영웅의 시가 떠올랐다. 바로 그 유명한 시의 정신으로 오늘의 성공을 위해 달려오지 않았던가.

이때 중앙의 한 책임일군이 그에게 다가와 수고했다고, 동무는 영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동무는 육중한 배밑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댔소?》

종근은 주춤거렸다. 자기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뛰여들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본능적으로…》

책임일군은 《본능적으로라?》 하고 뇌이더니 모여선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려운 일감이 나섰을 때, 목숨을 바쳐야 할 시각이 닥쳐왔을 때 조국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영웅이 된 우연은 단 한번도 있어본적이 없소.》

그렇다. 종근은 언제 어디서나 심장에 조국을 안고 살았고 조국은 곧 자기의 생명이고 삶이며 영광이라고 생각하였다. 조국을 위한 충성의 한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는것이 그의 인생관이였다.

바로 그 인생관이 그를 서슴없이 위험한 배밑으로 뛰여들게 했던것이다.

저녁이였다. 책임일군이 찾는다는 련락이 와 종근은 어느한 방으로 갔다.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정깊은 눈길로 한참 바라보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으기 흥분된 기색으로 정중하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오늘 진수식정형을 보고드리면서 이 사업에 크게 기여한 동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순간 종근은 눈앞이 뿌예졌다. 심장이 멎는듯하였다.

(꿈인가 생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 평범한 연구사인 나에 대하여 보고드리다니…)

종근은 뜻밖의 사실에 놀라 한동안 어쩔줄 모르고 멍하니 서있

었다.

이어 그의 두눈에서 눈물이 고랑을 이루며 하염없이 흘러내리였다.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면서 겨우 《어버이수령님!》 하고 입속말로 되뇌이기만 하였다.

주체71(1982)년 10월 1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해갑문가물막이철배의 건조와 진수에서 제기된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해갑문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정종근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이것은 서해갑문건설과정에 처음 수여되는 영웅칭호였다.

표창수여식에서 국가의 책임일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달하였다.

영웅!

앞가슴에 금빛으로 빛나는 이 영웅메달을 달고 정종근이 연탁에 나섰다. 목이 메이고 줄줄이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말을 할수가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심장의 목소리를 다 듣고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쪼아박듯 새기고있었다.

부강조국건설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서해갑문과 더불어 조국이 알고 인민이 기억하는 영웅으로 자라난 젊은 과학자의 빛나는 삶에 대하여, 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지지 않는 인생의 영광을 다 받아안은 그의 무한한 행복에 대하여.

□ 《…훌륭한 과학자이며 참된 애국자입니다》

조국! 그대는 곧 수령님의 품이라고 심장의 토로를 하며 19살의 혈혈단신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정종근.

그에게는 그 어떤 명예나 값진 증서에도 비길수 없는 생의 전부와도 같은 절세위인의 값높은 평가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억척으로 간직되여있다.

서해갑문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은 은정속에 조국과 인민이 아는 영웅으로 된 정종근은 그후에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크고작은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나라의 조선소들에 도입하도록 하신 강구에 의한 새로운 진수방법이며 거대한 대형바다구조물을 건조진수하기 위해 긴장한 전투를 벌리던 나날들과 영영 버려질번했던 계선장을 살려 국가의 재부로 만든 숨은 노력, 나라와 민족의 국보인 국제친선전람관의 귀중한 선물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의 특출한 성과들과 선박분야의 새롭고 독창적인 과학기술론문들…

참으로 그가 해놓은 고심어린 과학탐구의 자랑찬 열매들은 많았다. 하지만 그는 이에 만족할수 없었다.

(내 한생을 다 바쳐도 과연 나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의 은혜, 수령님의 은덕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수 있겠는가.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을 위하여 달리고 또 달리자.)

이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모대기던 어느날 밤이였다.

보풀이 진 종자탐구수첩을 뒤적이던 그는 어느한 대목에서 탄성을 질렀다.

거기에는 《뜬도크! 무조건 해야 한다.》는 글발이 적혀있었다.

뜬도크를 만드는것은 땅을 파고 도크를 만드는것보다 쉬우며 투자도 적게 들고 그 리용률도 높다고 하시면서 뜬도크를 만들어 쓰는

것이 좋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있었다.

밤은 깊어갔으나 정종근은 잠들수 없었다. 일단 탐구의 대상, 종자를 잡으면 모든 사색의 흐름이 그곳으로만 흐르는 그였다.

뜬도크를 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바로 그 뜬도크를 내가 무조건 해내야 한다. 뜬도크에 평선대를 련결하여 뜬도크식평선대를 세상에 내놓아 어버이수령님께 꼭 기쁨을 드려야 한다.

종근의 착상은 그야말로 경제적이고 현실적인것이였다.

물에 떠다니면서 임의의 장소에서 배수리를 할수 있는 배형식의 도크와 배를 수리하거나 새로 뭇는 작업장인 평선대가 결합된 뜬도크식평선대를 리용하면 여러척의 배를 륙지와 바다에 마음대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면서 수리도 하고 진수도 할수 있다.

정종근은 뜬도크설계에 달라붙었다. 세계가 반세기가 걸려야 완공될것이라고 하던 서해갑문을 불과 5년만에 일떠서도록 하신 위대한 스승의 담력과 배짱을 닮으며 영웅과학자가 된 그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는 연구소의 기술력량을 책임지고 뜬도크설계로부터 건조와 진수의 전 공정을 맡아 불사신처럼 완강하게 돌진해나갔다.

몇해동안의 자료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고심참담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날 한 일군이 그에게 성공할 가망이 있는가고 물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직은 그 어떤 확신도 과학적담보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차례나 간곡한 교시를 주신 뜬도크를 아직도 내놓지 못했다는 과학자의 죄의식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생을 바쳐서라도 뜬도크를 기어이 만들어내고야말겠습니다.》

정종근을 책임자로 하는 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으로 훌륭히 제작된 뜬도크는 1991년 5월 드디여 바다에 떴다. 그것은 조국의 선박공업분야에서 하나의 혁명이였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뜬도크와 평선대를 결합하여 배건조와 수리에서 그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뜬도크식평선대설계를 련이

어 내놓았다.

정종근의 과학적재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뜨도크식평선대를 설계한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설치할 장소와 거기에 드는 자재문제까지 다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큰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정종근동무는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겨 당의 배려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어느한 설계연구소 연구사로 일하면서 이미 서해갑문건설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계속하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그는 우리 당이 키워낸 훌륭한 과학자이며 참된 애국자입니다.

내가 늘 관심하고있는 대형뜨도크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조하고 진수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한 그 동무를 평가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참된 애국자!

세상에 이처럼 값높은 부름이 또 어데 있으랴.

정녕 그 부름은 이 세상 전부를 준대도 바꿀수 없고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절세위인의 값높은 평가였다. 인생의 더없는 영원한 재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정종근은 또다시 과학자로서 지닐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인민과학자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2021년 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정종근은 서해기슭에 자리잡은 한 조선소를 찾았다. 거기에는 그가 수십년전에 설계한 뜨도크식평선대가 있었다.

수십년째 만가동해오고있는 뜨도크식평선대는 조선소는 말할것도 없고 나라의 선박공업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재부였다.

《뜨도크를 한번 돌아보려고 왔습니다.》

인사말은 이처럼 소박하게 하였지만 사실 그는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정비전략, 보강전략을 받아안고 수십년전의 창조물인 뜨도크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이루던 끝에 로년기의 불편한 몸으로 어려운 걸음을 한것이였다.

정종근은 조선소일군들과 함께 뜨도크식평선대의 기술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조선소로동계급의 성실하고 깐진 일본새로 하여 뜨도크식평선대의 가동상태는 예나 다름없이 정상이였다. 그러나 작업갑판의 외판두께는 바다물에 부식되여 상당한 정도로 얇아진 상태였다. 그가 조선소로 오면서 제일 우려한것도 바다물속을 계속 드나드는 작업갑판의 부식정도였다.

그런 상태로 계속 가동하다가는 뜨도크식평선대가 불원간 침몰되는 파국적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방도는 뜨도크식평선대의 전면녹털기를 진행하고 거기에 질좋은 녹막이칠감을 바르는것이였는데 제일 난문제는 부착세기가 높고 바다물에도 견디는 막대한 량의 질좋은 칠감을 해결하는것이였다. 조선소일군들도 그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있었지만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해당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었다.

그날 밤이 깊어 집에 돌아온 종근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답답한 가슴을 식히느라 창문을 여니 집 맞은켠에 자리잡은 당창건사적관이 한눈에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체취가 그대로 어려있는 사연깊은 건물을 바라보느라니 자기를 품어주고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 생각에 눈굽이 젖어들었다. 그러는 그에게 뜨도크식평선대를 설계하고 제조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던 수십년전의 그 나날이 방불히 떠올라 마음은 뜨거워만 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정깊은 교시가 깊은 밤의 대기를 흔들며 조용히 울려오는것만 같아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뜨도크식평선대의 출생을 두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가 하는 생각으로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창조물을 내놓은것만으로 과학자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있는가. 그 창조물이 조국과 인민에게 나날이 덕을 주는 재부로 되지 못하고 흐르는 세월속에 사라진다면, 조국앞에 자기의 창조물 하나 책임질수 없다면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시는 영웅이며 인민과학자라고 할수 있으랴.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마음속에 그리며 수령님을 우러러 정중히 아뢰였다.

(위대한 수령님, 오늘도 선박공업발전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는 뜬도크식평선대는 어버이수령님의 귀중한 애국유산입니다. 그 천금같은 재부를 이 한몸 바쳐서라도 기어이 지켜내겠습니다.)

동터오는 새벽 정종근의 가슴속에 열정의 아침노을인양 뜨겁게 불타오른 맹세.

정녕 그것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로과학자가 터치는 애국적량심의 웨침, 참된 삶의 웨침이였다.

여러날째 계속된 뜬도크식평선대에 대한 종근의 고심을 알게 된 자식들은 처음에는 몹시 놀라와하였다. 그처럼 어렵고 방대한 일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들에게 정종근은 말하였다.

《조국에 필요한 일을 놓고 어찌 할 일, 못할 일을 가르겠느냐. 더우기 뜬도크식평선대는 내가 조국앞에 목숨걸고 담보한 내 살붙이와도 같은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자식들은 아버지가 인생의 로년기에 새 건재개발의 길에 용약 뛰여들어 지금까지 새겨온 자욱들을 돌이켜보았다.

정종근은 영웅이고 인민과학자이고 박사였지만 결코 공적의 그늘아래서 여생을 보낼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우기 그의 마음속에는 선박공업부문에 필요한 건재품들을 많은 자금을 들여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것이 늘 아프게 맺혀있었다.

이미전에 배운 화학의 개념들을 되살리며 시간과 정력을 아낌없이 바쳐 화학의 신비한 장막을 열어나갔다. 여러 화학공장과 전문분야의 기술자들을 찾아 그가 걸은 길은 얼마였고 조국땅 방방곡곡으로 원료배낭을 메고 다니며 흘린 땀은 또 그 얼마였던가.

그때는 누구도 몰랐다. 공민으로서, 과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를 다 지닌 그가 어이하여 고령의 나이에 생소한 건재분야에 뛰여들어 어려운 탐구의 길을 이어가는지, 건재품중에서도 왜 선박용칠감개발에 더 특별한 관심을 두고있는지.

내수성이 강하며 기후변화에도 잘 견뎌야 하고 녹막이효과와 부착세기가 좋아야 하며 또한 그 수명이 길어야 하는 질좋은 선박용칠감개발은 화학의 세계에서는 초학도인 그에게 있어서 매우 아름찬 과제였다.

숱한 문헌들을 연구하며 오랜 기간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처음으로 만든 칠감을 가지고 그가 제일먼저 달려간 곳은 어느한 조선소였다.

수리중인 배의 한쪽측면에 자기의 첫 시제품인 칠감을 정성껏 바를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크나큰 기대와 흥분으로 벅차올랐던가.

하지만 열흘만에 다시 가보니 그를 맞아준것은 배겉면에 뻘겋게 쓴 녹이였다. 칠감을 바른 부분을 확대경으로 살펴보니 구멍이 숭숭했다.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그는 새 원료를 찾아냈다. 마침내 선박용칠감의 두번째 시제품이 나왔다.

철판 한쪽에는 두번째 시제품으로 나온 칠감, 반대쪽에는 다른 나라 칠감을 바르고 하루를 흘러보냈다. 다음날 칼로 철판에 가로세로 금을 그어보니 새로 만든 칠감이 수입한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것이 아닌가.

종근은 뜬눈으로 며칠밤을 새웠다. 원인을 찾아 모대기던 어느날 그는 손을 대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다시 금을 그어보았다. 그런데 웬 일인가. 이번엔 반대로 자기들이 새로 만든 칠감은 끄떡없이 붙어있는데 다른 나라 칠감이 와르르 떨어져내리는것이 아닌가.

성공이였다. 결국 새로 만든 칠감은 다른 나라 칠감보다 경화시간이 오랜 반면에 부착세기는 그에 대비할수 없이 좋았던것이다.

그는 막 소리높이 웨치고싶었다. 이제는 우리 배들에 우리의 옷을 입히게 되였다고.

너무 기뻐 어린애마냥 기쁨에 젖어 달려온 그를 맞이한 종업원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일생에 한 분야의 지식을 다 터득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건만 그는 얼마나 많은 새로운 탐구의 초행길을 헤쳐왔던가.

그 비결은 결코 뛰여난 두뇌와 재능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조국이 바라고 조국에 필요한것이라면 누구나 선뜻 말아나서기 저어하는 일감을 걸머지고 어려워도 끝까지 한길을 가는 고결한 애국적량심에 있었다. 정녕 과학탐구는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티없이 깨끗한 량심으로 하는것이였다.

조국을 위한 길에 자기의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깡그리 바치고싶어하는 아버지의 절절한 소원을 알게 될수록 맏아들인 룡수의 마음은 뜨거웠다.

아버지와 아들은 밤새 계산해놓은 뜨도크식평선대의 전면도장작업에 필요한 칠감원료와 자재의 타산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원료보장에만도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야 하는지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조국의 재부를 지키는 길에 무슨 다른 타산을 앞세울수 있으랴.

며칠사이에 얼굴이 몹시 축간 아버지에게 룡수는 말하였다.

《아버지, 우린 아버지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가정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기어이 따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유산을 지키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종근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그라고 어찌 자기 가정의 오늘과 래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랴. 하지만 그는 조국이 부흥하는 바로 그 길이 자기 가정이 흥하는 길임을 굳게 믿었던것이다.

그날 정종근과 룡수는 태양절전으로 뜨도크식평선대도장작업에 필요한 녹막이칠감과 금속칠감을 전량 마련하여 조선소에 보내줄것을 다짐하였다.

다음날 조선소일군들은 정종근과 그의 아들을 격정속에 맞이하였다.

뜨도크식평선대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자기들이 세운 보수일정계획까지 내놓는 그들을 보며 온 조선소사람들이 한 과학자가정의 고결한 가풍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때부터 뜨도크식평선대보수작업에 필요한 칠감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방대한 량의 원료를 해결하기 위해 정종근과 온 가족은 숭고한 애국적지성과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6차에 걸쳐 보수작업에 필요한 녹막이칠감과 금속칠감을 전량 생산하여 조선소에 보내주고 기능공들까지 파견하여 도장작업을 기술적으로 도와주었다.

《누구나 조국을 위하여 한몸을 다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품, 우리 수령님의 품속에 성장한 훌륭한 과학자, 참된 애국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속에서 그토록 질좋은 녹막이칠감을 마련하여 보내준 정종근과 그 후대들의 소행에 감동되여 온 조선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토로하는 말이였다.

뜨도크는 하루가 다르게 새 모습으로 변모되였다.

조국의 재부가 또 한번 젊어지는 벅찬 공사현장에서 또 한사람의 로과학자가 한껏 젊어지고있었으니 그가 바로 불편한 몸으로 높은 사다리를 쉬임없이 오르내리며 자기가 직접 칠감을 바르기도 하고 로동자들에게 조언도 주면서 도장작업을 지휘하는 78살의 정종근이였다.

도장작업은 념려말고 건강을 돌보라고 하는 조선소일군들에게 그는 가슴속에 용용히 차오르는 애국의 희열을 이렇게 터놓았다.

《이 늙은 몸이 다시 태여나는것만 같소.》

수십년전에는 뜨도크식평선대의 출생을 담보했고 오늘은 그 운명을 조국앞에 끝까지 책임지는 길에 자신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세운 참된 과학자.

조국과 자기 삶을 하나로 합치고 약동하는 조국의 젊음을 위해 사는 참된 과학자에게 인생의 로년기란 있을수 없다.

몇해전 조국을 방문한 종근의 동생이 그의 집을 찾았다. 이미 소식을 통하여 형님이 조국에서 세운 공적과 그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은정에 대해 잘 알고있던 동생은 방문을 열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방안의 벽을 가득 채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 **김일성**상,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과 로력영웅,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의 증서들을 부러웁게 바라보며 그는 물었다. 조국앞에 얼마나 많은 공적을 세우면 이런 영광을 받아안게 되는가고.

정종근은 긍지에 넘쳐 진심을 토로했다.

《조국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면 바친것보다 더 큰 영광을 안겨주는것이 바로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품이다. 그 위대한 품속에서 나의 생명까지도 깡그리 바쳐 조국을 받들려는것이 나의 소원이다.》

정녕 그러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훌륭한 과학자, 참된 애국자라고 높이 불러주신 값높은 평가를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사는 정종근은 오늘도 새로운 연구종자를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을 걷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같은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는 그를 한품에 안으시고 여러 차례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자식들과 손자들에게도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　　　*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인생의 시간은 짧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국의 운명과 한피줄을 잇고 오직 조국의 부강번영만을 생각하며 여기에 자기의 불타는 열정과 재능을 바쳐가는 사람처럼 할 일이 많고 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은 없다.

《애국의 길에는 종착점이 없습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이 성스러운 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부흥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저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많은 과학탐구의 열매를 내놓을것입니다. 내 못다 가며는 아들이 그리고 손자들이 나의 길을 대를 이어갈것입니다.》

정종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던 영광의 그날에 사람들에게 한 심장의 토로이다.

참으로 고결한 인생관의 소유자가 터치는 이 목소리야말로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만 들어볼수 있는 불타는 삶의 찬가, 아름다운 생의 메아리가 아니겠는가. 조국과 더불어 빛나는 삶의 노래, 생의 메아리는 불패의 강국으로 치솟는 내 조국의 력사에 끝나지 않는 노래로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

조국과 인생

필 자 한영수
편 성 리용수
장 정 채대성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9월 1일
발 행 주체112(2023)년 9월 4일

ㄱ－1616ㄷ

ISBN 978－9946－31－171－5



ISBN 978-9946-31-171-5